수입차 전문 수리 불리카 때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F. 063-244-1043





2025년 11월 6일(목) 제 3202호

김관영 도지사, 국회 '예산전쟁' 총공세

예결위간사·정책실장등잇단면담 전북핵심시업국비반영적극요청 새만금·AI·문화 3대 현안 총력 박희승-도-시군 합동캠프 구성

전북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국회를 방 문해 예산 및 정책 관련 핵심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새만금, AI, 문화예술 인프 라 등 전북의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국 가예산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고 5일 밝 혔다.

이번 행보는 국회 예산심사 초기 단 계부터 전북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설득함으로써, 실질적인 국비 확보 효 과를 높이기 위한 전방위 대응전략이 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 민주당 이소영 예결위 간사, 김종수 정 책실장, 조계원 국회의원(문체위·예결 위) 등을 잇따라 만나 도가 추진 중인 핵심 사업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관련 예산이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 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우선 이소영 예결위 간사 를 만나 ▲국립 모두예술콤플렉스 건 립 ▲사료작물 종자 생산단지 구축 ▲ 새만금 상수도 간선관로 건설 ▲남원 경찰수련원 신축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 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김종수 정책실장과의 면담에서

는 ▲새만금 RE100산단 선도지역 지정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새만금 국가 정원 조성 ▲전북권역 통합 재활병원 건립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등 을 설명한 뒤 국가 정책과의 연계 필요 성과 예산 반영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문화 기반 확충과 관련해서는 조 계원 국회의원과의 대화에서 ▲국립모 두예술콤플렉스 건립 ▲국립중앙도서 관 문화예술특화 분관 건립 ▲국립후 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등 문화 인프 라 사업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전북자치도는 국회 대응을 통해 전북 이 미래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 는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청년 인구 유입, 문화·복지 인프라 확 대 등 파급효과도 함께 노리고 있다. 새 만금 개발의 지속 추진과 AI산업 육성, 지역 맞춤형 문화사업의 확대는 전북 의 전략적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사업 으로 평가받는다.

이를 위해 박희승 국회의원실과 도-시군 합동 상주 캠프를 구성해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전북은 국 가균형발전의 핵심 주체로 도약해야 할 시점에 있다"며 "새만금, AI, 문화 인 프라 등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 가의 미래 성장과 직결된 과제인 만큼,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투자가 절실 하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국회를 방문, 전북 핵심 현안사업 국가 전북도, 국가예산 확보 도지사 '광폭 행보' 예산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김종수 민주 당 정책실장 면담(上) 조계원 예결위 의원 면담(下) <사진=전북자치도>

전북도, 세종시 국토부 청사서 '고향사랑기부제' 매력 전해

대표 답례품·지정기부사업 소개 지역균형발전 가치 확산

전북도는 5일 세종 국토교통부 1층 로비에서 '전북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행사'를 열고, 전북의 대표 답례품과 지 정기부사업을 소개하며 공직자들의 자 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균형발전과 상생이 라는 국토교통부의 정책철학과, 지역 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부문화 확 산이라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함 께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홍보부스에는 천연꿀·참기름·추어 탕·청자제품·친환경 돌솥 등 전북 대 표 답례품이 전시됐으며, 땅콩·약과· 떡·오미자즙 등 인기 답례품 시식·시 음 코너도 운영돼 방문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홍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정기부사업'의 의 미와 가치를 집중 소개하며, 현장에서 바로 전북의 지정기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했다. 전북의 지정 기부사업은 ▲가정위탁 아동용품 지원 ▲장애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등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내용 으로 구성돼 기부자가 성과를 직접 확 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대해 백경태 전북특별자치도 대 외국제소통국장은 "국토교통부는 주 거·교통·국토 균형발전을 책임지는 부 처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맞닿 아 있다"며 "국토 균형발전의 중심에서 전북이 가진 잠재력을 널리 알리고, 전 북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전국 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정부 및 지자 체 인사로는 금

한승 기후에너 지환경부 차관,

주대영 국립공

안호영 위원장, 국회서 '덕유산 50년의 길' 사진전 개최

안 의원·국립공원공단 공동 주최 "덕유산 50년, 생태보전 자부심"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원회 위원장은 4일 국회의원회관 2층 중앙로비에서 국립공원공단과 공동으 로 '덕유산국립공원 지정 50주년 기념 국회 사진전'을 개최했다.

이날 전시는 덕유산의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맞아 자연·문화·역사적 가치 를 되새기고, 향후 보전 비전을 공유하 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시는 오는 7일 까지 진행된다.

올해 50주년을 맞은 덕유산국립공원 은 '은혜롭고 덕(德)이 가득한 덕유산 속으로'를 주제로, 사계절 경관과 생태 자원,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공 존의 여정을 담은 사진 작품들을 선보

개막식에는 안호영 위원장을 비롯해 김주영 간사, 박정 의원, 이용우 의원이 참석하여 행사를 축하했다. 또한 문정 복 의원과 백혜련 의원도 전시장을 방 문하여 관계자 및 지역 작가들과 함께 덕유산 보전과 지역 상생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원공단 이사장, 황인홍 무주군 수가 참석해 자 리를 빛냈다. 더 불어, 덕유산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이 윤승·박봉진·김정숙 작가도 함께하여

치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다. 안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덕유산 의 50년은 우리 국립공원 보전의 자부 심입니다. 이 가치가 다음 세대에 그대 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후·생태 보전과 지역 상생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습니 다"라고 강조했다.

작품 설명과 덕유산의 생태·문화적 가

이어 "국립공원은 자연 보전과 지역 의 삶이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지난 50 년을 지켜온 것처럼 앞으로의 50년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덕유산 국립공원의 역할 과 향후 비전을 되새기는 차원에서 마 련되었다. /서울=김영묵기자

전북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312억 규모…연내 신속지급

도민 1만 2천세대에 291억 지원 주택 침수·소상공인 지원금 상향 시설 복구비 등 국비 159억 확보

전북도가 9월 6~7일 발생한 기록적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에게 연내 재난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한다고 5일 밝혔

도는 이번 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계 획을 확정하고, 피해를 입은 도민 1만 2,589세대에게 피해 유형에 따라 총 291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세대별 지원금 내역은 시군 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 으며, 제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연 말까지 교부한다.

기재부와 행안부를 설득해 위로금과 보조금 단가가 상향됐다.

주택 침수 가구 지원금은 350만 원에 서 700만 원으로, 소상공인 지원금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됐 다. 농·임·수산물 피해 지원율도 50% 에서 100%로 상향돼 3,426세대에 위로 금을 추가 지급한다.

이번 복구계획은 중앙부처와의 협의 를 통해 국비 159억 원을 확보하며 총 312억 원 규모로 마련됐다. 국세·지방 세 납부 유예, 재해복구자금 융자, 건강 보험료·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24개

분야의 간접지원 서비스도 병행 추진 된다.

당시 도내에는 평균 137mm의 비가 내렸으며, 군산 296mm, 익산 함라면 26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서북부 권에 집중됐다. 군산시는 7일 새벽 0시 57분 시간당 152mm를 기록해 기상관 측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로 인해 10개 시·군에서 농작물 2,369ha, 주택 469동, 소상공인 점포 2,787곳 등 총 3만 175건의 피해가 발 생했다. 피해액은 86억 원으로 전국 9 월 피해액의 80%를 차지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복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는 피해가

심각했던 김제시를 중심으로 행정안전 부·농림축산식품부에 피해 조사 연장 을 요청했고, 직접 김제에 방문해 복구 계획 수립을 자문했다.

중앙합동 피해조사단과의 현장 점검 에도 참여해 지역 실정을 설명한 결과, 김제를 포함한 8개 시·군이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통해 국비 159 억 원을 확보하면서 지방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시·군별 복구사업 추진 여건의 안정성도 확보했다.

공공시설의 경우 총 23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국비 9억 원, 도비 4억 원 을 포함해 총 21억 원을 투입해 복구를 진행한다. /장정철 기자



2025년 11월 6일 목요일

전북,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관광 허브 도약 '탄력'

활성화·터미널 연구용역 중간보고 유치전략·관광연계 방안 논의 전국8대기항지도약역량집중 별도 20개 기관 TF 구성 추진

전북도가 2026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 신항만을 거점으로 국내 크루즈 관광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탄력이 붙었다.

도는 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활성화 및 국제 크루즈 청,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세관·출입국· 터미널 조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 최해 크루즈 유치,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전북형 실행 전략을 점검했다고 밝 을 체결하고 크루즈 선사·여행사 대상 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도의회, 새만금개발 해 연중 운영하고 있다. 청,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전북문화관 광재단, 14개 시군 등 관계기관 40여 명 이 참석해 연구용역 추진상황 공유와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크루즈 선사·여행사 유치전략 ▲인센티브 제도 ▲CIQ(세관· 출입국·검역) 운영방안 ▲관광자원 연 계형 프로그램 개발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중이며 전북도는 이를 기반으로 새 만금개발청, 군산해수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질적 유치 기반을 마련할 계 획이다.

그간 전북도는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기반을 쌓 아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새만금개발 검역기관 등 8개 기관과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업무협약'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전담 TF를 구성

또 올해 2월에는 김종훈 경제부지사 를 위원장으로 한 '전북 크루즈산업 발 전위원회'를 출범시켜, 전문가·유관기 관과 함께 추진과제를 논의하고 제주국 8대 크루즈 기항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는 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활성화 및 국제 크루즈터미널 조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제크루즈포럼 등에서 국내외 선사 대상 홍보를 강화해 왔다.

등 기존 기항지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신규 기항지 발굴을 추진 중이다. 전북 도는 지난 10월 '새만금 신항만'과 '격포 항'을 신규 기항지로 신청하였고, 전국 TF팀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사진=전북도>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도는 기존 TF팀과는 별도로 새만금 최근 해양수산부는 부산·제주·인천 크루즈 관광 수용태세 확보 협력을 위 해 14개 시군,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전북문화관광재단, 새만금개발청, 선 사·여행사 등 2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장정철 기자

김병기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반드시 지킨다"

내달 2일 처리 "정쟁보다 책임" "대미투자특별법이달중처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법정기한을 더는 어 겨서는 안 된다"며 내달 2일 처리 입 장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 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과 미래 를 다루는 일에는 정쟁보다 책임이 먼저여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예산안은 미래를 위한 설계도이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약 속"이라며 "성장과 복지, 두 바퀴가 함께 굴러야 나라가 앞으로 나아간 다. AI(인공지능)로 미래를 준비하 고 복지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 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격 도입하고, 10조원을 투입하여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산 업과 공공서비스는 한층 더 효율적 목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으로 변회되고, 국방은 지능형 안보



김병기 의원

습으로 바 뀔 것"이라 고 덧붙였 다.

로, 교육은

맞춤형 학

그러면서 "이제는 국 회의 시간" 이라며 "민

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끝까지 책 임지는 자세로 임하고, 국민의 삶이 멈추지 않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 너지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천명

김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협상 후 속조치'와 관련해선 "팩트시트가 완성되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신 속히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마련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을 11월 중 이어 "산업과 공공 전반에 AI를 본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이번 경주 APECDML 성과가 산업으로 일자리 로 그리고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도

/서울=김영묵기자

전북도, '올림픽도시' 천명…스포츠로 세계 향한다

2025 올림픽도시 포럼 15일 개최 올림픽스타·전문가 참여 비전 제시 '가장 한국적인 올림픽' 과제 발굴

전북도는 오는 15일 2025 올림픽 도 시 포럼을 개최하고 하계올림픽 유치와 올림픽도시 조성의 서막을 연다고 5일 밝혔다.

한 도시, 또는 올림픽의 가치가 시민의 삶·경제·외교로 이어지는 도시 플랫폼' 으로 정의한다. 단순히 대회를 치르는 것을 넘어, 유치를 계기로 사람과 공동 체, 환경과 경제가 함께 성장하도록 스 포츠·문화·교육·도시정책을 연결하는 가치 기반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의미다. 또 올림픽을 통한 글로벌 협력과 경제

외교의 무대를 마련해 지역경제의 질적 다. 성장과 국제 위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 다. '2025 올림픽도시 포럼' 유치 단계부 터 올림픽 정신을 도시 시스템에 구현 하는 출발점이다.

북·전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해 하계올림 픽 유치에 나섰음을 천명하는 자리다. 올림픽 스타들을 초청해 국민적 관심을 도는 '올림픽도시'를 "올림픽을 개최 전주에 집중시키고, 각계 전문가들이 올 림픽도시 조성의 방향을 제시한다.

> 기조 세션에서는 '올림픽과 도시'를 주제로 박주희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이사장, 조현주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 연구원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이정수 (쇼트트랙)·서영우(봅슬레이) 등 올림 픽 스타 및 대학원생 20여 명도 참석한

박 이사장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 (OCA) 인증을 받아 설립한 우리나라 유 일의 '아시아올림픽대학원' 주임교수이 자 대한체육회 아시아스포츠앰버서더 전북대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전 다. 조 연구위원은 올림픽학 전공자로 국제 스포츠 정책 및 스포츠외교 분야 전문가이며, 윤 원장은 40여 년간 국제 스포츠 외교통으로 활약하며 올림픽 운

> 을 시작으로 '세션 1'에서는 언론인들이 참여해 '가장 한국적인 도시, 가장 혁신 적인 올림픽'을 주제로 논의한다. 올림 픽도시를 지향하며 유치에 나선 전북・ 제에 대해 다양한 제안이 도출될 전망 로발굴·지원한다.

'세션 2'에서는 올림픽 스타들이 총출 동한다. '지속 가능한 한국 스포츠의 미 래'를 주제로 이동국(전북현대 출신 축 구선수), 오상욱(올림픽 펜싱 금메달리 스트), 곽윤기(前 쇼트트랙 국가대표) 등 이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생생한 이야기 를 들려준다.

도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올림픽 가치 동과 스포츠를 통한 사회 변화를 이끌 를 실천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학교·체 육계·기업·도민과의 협치를 통해 모두 전주대 태권도시범단 '싸울아비' 공연 가 참여하는 '전북·전주형 올림픽도시' 를 완성할 계획이다.

전북·전주가 하계올림픽 유치를 준비 하는 국가대표 도시임을 대내외에 알리 고, 각계각층에서 올림픽 가치를 확산하 전주가 나아갈 방향과 해결해야 할 과 기 위한 다양한 실천 사업을 지속적으 /장정철 기자

익산서 홀로그램 엑스포…'미래산업 빛의 물결'

20~22일 원광대학교서 개최 산업·기술·문화 융합의 장

전북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원 장 김성규)은 '2025 홀로그램 엑스포 HOLO WAVE'가 오는 20일부터 22일 까지 3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 지 익산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익산시가 주최하고 '홀로그 램 산업 확산지원사업'을 통해 운영되 는 이번 행사는 (재)전북특별자치도콘 텐츠융합진흥원과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원광대학교, 한국전자기술 연구원, 키엘연구원이 함께 참여해 산・ 학·연·관이 협력하는 홀로그램 산업 및 기술 교류의 장이다.

'미래를 밝히는 빛의 물결, HOLO WAVE'를 주제로 하는 이번 엑스포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가 그동안 추 진해온 홀로그램 산업 육성 성과를 도 민과 공유하고, 문화·기술·산업이 융합 된 새로운 홀로그램 산업 비전을 제시 하는 자리로 이를 통해 홀로그램 도시, 익산의 위상을 전국적으로 알릴 예정 이다.

20일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대형 홀 로그램 전시 △VR 드로잉 쇼 △홀로그 램 마술쇼 △미래기술 포럼 등 홀로그 램 산업의 기술력과 예술성이 결합된 개막 공연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내부 공간인 전시 ZONE에서는 △대 기업관 △홀로그램 타임관 △호러 홀 로그램 전시관 △전북 대표 홀로그램 기업관 등 20여개 기업이 참가하는 산



'2025 홀로그램 엑스포 HOLO WAVE'기 20~22일 원광대학교 문화체욱관에서 열 <사진=전북도>

업전시가 운영되며, 체험 ZONE에서는 홀로그램 키트 만들기, 홀로그램 미디 어페인팅, 홀로그램 포토존 등 홀로그 램 기술 발전의 과정과 현주소를 알 수 있는 전시뿐 아니라 가족 단위 방문객 이 함께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도 마 려된다.

외부 공간에는 신산업융합대전 ZONE, 푸드 ZONE, 굿즈 팝업스토어 등이 함께 운영돼 축제형 엑스포의 즐 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또한, AR 스탬프 랠리, 홀로그램 OX 퀴즈 등 상시 이벤트와 버스킹 공연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상시 진행된다.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김성규 원장 은 "도민은 물론 전국의 기업과 청년들 이 참여해 홀로그램 산업의 미래를 직 접 체험하고 새로운 협력의 파도를 만 들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은지 기자

전북자치도,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 발령

'철새 AI 주의단계' 발령 이어 철새도래지·수변지역 방역 강화

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 출됨에 따라 '철새 주의단계' 발령에 이 장 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어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를 발령하 고 가금농장 방역 강화에 나섰다.

도는 지난달 29일 군산 만경강의 야생 조류 분변과 지난 3일 부안 고부천의 쇠 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오리에서 H5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됨 에, AI 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 것으 로 판단하고 5일부터 위험주의보를 발 령한다고 밝혔다.

어, 철새 이동이 활발해지고 도내 주요 제구간 진입 금지 등 관리지침을 엄격 서식지의 감염 위험이 커진 데 따른 선 히 이행하도록 했다. 전북도가 도내 철새도래지에서 잇따 제적 대응이다. 도는 시·군과 관련 기관,

금농가를 중심으로 방역차량을 총동원 해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농가에 철저

△출입 전후 소독 및 장갑·장화 교체 △ 동할 예정이다. 소독시설·울타리·방조망 점검 △농장

AI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데 이 GPS 단말기 상시 가동 △철새도래지 통

이와 함께 시·군은 위험주의보 발령 생산자 단체 등과 협력해 AI의 가금농 사항을 신속히 전파하고 방역차량을 총 동원해 철새도래지, 수변지역 등 위험지 도는 철새도래지와 수변지역 주변 가 역 중심으로 소독을 강화한다. 방역본 부는 가금농가 전화예찰 시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축협과 가금 생산자단체, 계 열사 등도 회원 농가에 방역수칙 이행 특히 △외부 차량·사람의 출입 제한 을 독려하는 등 기관별 협조체계를 가

이재욱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도내 주변 구서 작업 등 기본수칙을 강조했 주요 철새도래지에서 고병원성 AI가 잇 이번 조치는 지난달 27일 전국적으로 다. 또한 축산관계 차량에 대해서는 △ 따라 검출되는 등 바이러스 유입 위험 다.



전북도는 5일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가금농장 방역 강화에 나섰다.

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농가와 축 산관련시설 모두 한순간의 방심 없이 차단방역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 /김은지 기자



전주시, 대한민국 대표 마이스박람회 '참여'

전주마이스유치'홍보' 전주이간관광이벤트선보여

회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2025(이하 엑 스포)'에 참가해 홍보관을 운영하며 관광 객 유치에 열을 올렸다.

시는 이번 홍보를 통해 전주시 마이스 열렸다.

인프라와 전주 관광자원을 안내하고, 향 후 건립 예정인 전주전시컨벤션센터 및 전주MICE복합단지를 집중 홍보했다.

더불어 전주 야간관광 관광자원 홍보 전주시가 대한민국 대표 마이스 박람 등 마이스 행사 유치 위한 마케팅 및 전 회 Δ 마이스협회 회원사 Δ 각국 관광청 주 관광 홍보에도 정성을 기울였다.

>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2025'는 지난 3 등이 대거 참여했다. 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엑스포는 (사)한국MICE협회가 주최· 주관하고 서울특별시와 한국관광공사 등이 후원했다.

△각국 대사관 △국내 마이스 관련 기관

시는 엑스포를 통해 마이스 비즈니스 전주 MICE 인프라를 알리기도 했다. 및 기업 홍보와 네트워크 구축 및 최신

정보 등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마이스 행사 주최 협 회와 학회 등 주최자와의 1:1 상담을 진 아울러 엑스포에는 국내 △협회 △학 행하며 마이스 행사 유치에 공을 들였다.

여기에 시는 전주 야간관광 인스타 팔 로워 이벤트 등 신선하고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정소민 기자

전주시, '상습 체납자' 대여금고 금융기관 압류·봉인 강수

총14명세종전주등금융기관대상 미납부시공매절차진행

전주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 여금고 세종·전주·남원 등의 금융기관에 압류·봉인 강수를 뒀다.

시의 이번 조치는 체납액 징수 위한 강 력한 체납처분 일환이다.

이로 인해 압류·봉인 대상자는 총 14명 으로 이들은 체납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들로서 금융기관 대여금고를 이용하는 자들이다.

앞서 시는 압류·봉인 대여금고에 대하 여 14일 동안의 납부 기간을 부여했다.



시는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금고를 개봉해 내부 물품을 확인한 후 물품별로 체납처분(압류·공매 등) 절 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앞으로 채납자들의 △예금 △부동산 △차량 등 여러 자산에 대해서 도 강력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에 대 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을 위해 시

는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 납자들에 대해 큰 대응 방침을 적용할 것 이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학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본격화

11월부터 1단계로 신성공원 지하저류조 기초공사 추진

전주시는 평화동 신성공원 일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소지구 우수저 류시설 설치사업'을 진행한다고 5일 밝 혔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20년 8월 8일 내린 시간당 최대 35.1mm 집중호우로 인해 2.0ha의 면적과 주택 7동의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시는 반복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 '우수유출저감 시설 설치 공모사업'에 신청했으며 이듬 해 신규 사업지구에 선정됐다.

시는 최근 공사 착수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8년 4월 까지 총 272억원 사업비를 투입해 △신



전주시는 평화동 신성공원 일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성공원 내 우수저류조 설치 △학소제 우 수저류지 정비 △장천제 방류 기능 개선 등을 추진한다.

1단계 사업으로 신성공원 내 녹지공간 지하에 약 8200톤 규모 우수를 담아둘 수 있는 저류조를 설치해 도심지 침수 위 험 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후 시는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사업을 통해 약 6960톤의 우수를 기존 학소제(소류지)에 추가적으로 담아 둘 수 있도록 학소제를 저류지로 정비할

더불어 학소제 주변에 설치하는 관리 용 도로는 주민 편익 제공을 위해 주민들 이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전주시 건설안전국 관계자는 "학소지 구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통해 침수 피해 를 예방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한 전주를 만들고,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 라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청년소통네트워크데이' 운영

오는 8일 오전11시~오후6시

다가오는 11월 8일 오전 11시부 터 오후 6시까지 청년이음전주(완 산구 현무1길 31-5) 소재에서 '청 년 소통 네트워크 데이'가 운영될 예정이다.

'청년 소통 네트워크 데이' 운영 은 청년이음전주와 지역 청년단체 인 볼드·블록 등 청년 문화인 30여 명이 기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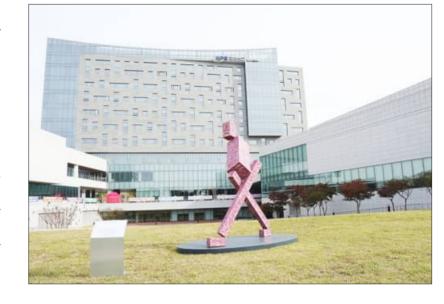
오는 행사를 통해 '청년 위너스 장기 콘테스트', '시공간을 넘는 청 년 코스프레 콘테스트', '토크콘서 트가 펼쳐진다.

아울러 △AI 드로잉, 공예 등 다 양한 문화체험 △푸드·뷰티 팝업 스토어 △예술작품 전시 및 토크 콘서트 △놀이와 체험을 통해 소 통하는 청년 놀이터 이벤트가 마 련되어 이어질 전망이다.

시는 지역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 고, 참여 주도형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청년정책 온라인플랫폼인 '청정지대'(youth. jeonju.go.kr) 또는 SNS(인스타그 램) '청년이음전주'에서 확인할 수

/정소민 기자



국민연금, 지역 청년 예술가 위한 '야외 조각전' 열어

국민연금공단본부 야외광장 개방

국민연금공단본부는 전북지역 청 년예술가들 위해 예술문화공간 전시 장을 개방했다.

5일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공단 야외 잔디광장을 활용해 전북대 학교 예술대학생 위한 '야외 조각전' 을 개최했다.

'야외 조각전' 전시장 개방은 지역 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지역민 들의 문화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다.

특히 이번 '야외 조각전'은 지난 2022년, 2023년에 이은 전북지역 교 육기관 전북대학교와의 공동 진행으 로서 세 번째 문화공간조성 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번 조각전에는 15명의 청년 예술 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이 제작한 16점의 작품은 국민 연금본부 야외광장에 내년 초까지 전 시되며 그동안 관람이 가능하다.

김태현 이사장은 "야외조각전 전시 를 통해 공단 시설을 지역사회와 공 유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지역문화 발 전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 는 사례"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주민들께 다양한 문 화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정소민 기자

전주지역 위기청소년 '권익 보호 및 법률 지원'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법무법인격, '법률서비스망' 구축

전주지역 위기청소년들의 권익보호 및 법률지원에 대한 전문서비스망이 구축 됐다.

5일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법 어지게 됐다. 무법인 '격' 대표와 전주지역 위기청소년 '법률자문 전문서비스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센터장 정혜선)는 5일 (대표변호사 정 다.

훈태)과 위기청소년 권익 보호와 법률 지 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주지역 학교 밖 청 소년들의 △가정 내 갈등 △비행 △폭력 △범죄 피해 등에 따른 전문서비스가 이

면했을 때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 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됐

협약에 따라 △청소년 대상 법률 상담 원을 위한 '법률자문 전문서비스 구축 업 및 자문 제공 △법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공동 연계 체 계 구축 △법적 지원이 필요한 사례에서 우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의 공동 협력 대응책이 가동된다.

한편 전주시청소년안전망 1388청소년 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더욱 촘촘한 보 지원단은 총 135개 기관, 207명으로 구 특히 위기청소년들이 법적 문제에 직 성돼 위기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정서적 지원, 교육 및 학업 지원, 진로 및 취업 지 원, 의료 및 건강 지원, 법률자문, 문화 활 고면 된다. 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법무법인 '격' 정훈태 대표변호사는 "청 소년 권리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위해 법 률서비스를 공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매

정혜선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호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 센터 누리집(www.jjsangdam.or.kr)을 참

/김영태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수능시험' 화재안전조사 완료

한국농수산대, '상생협의체' 구성 … 첫 협의회 개최

"수험생 안전 최우선"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권기현)는 관 내 수능시험장 9개소를 대상으로 '긴 급 화재안전조사'를 마무리했다고 5 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험장 내 화재 위험요 인을 사전 제거하고 수험생들이 안정 된 환경에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진행됐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3일 실시될 예정이다.

화재안전조사단은 각 시험장을 직 접 방문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 태 △피난·방화시설 확보 여부 △전 열기·전기설비 안전상태 △비상구 개

방 및 피난동선 점검 △화재취약요인 제거 여부 등을 집중 확인했다.

권기현 서장은 "수험생의 안전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촘촘한 사전 점검과 현장 대응 태세 로 수험생들이 오직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 여러분도 난방 기·전열기 사용 등 가정 내 안전수칙 준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 붙였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시험 종료 이후 에도 겨울철 화재예방대책과 연계해 관내 학교시설 및 다중시설 안전점검 을 지속할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 실외 인라인경기장 '다목적 공간' 조성 예정

2029년까지총사업비60억원투입

전주 실외 인라인경기장이 전천후 인 라인 전지훈련장이자 다목적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6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 모에 최종 선정되며 국비 18억원을 확보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29년까지 국비 등 총 60억원을 투입해 송천동 실외 인라 인경기장을 대상으로 '전천후 인라인 전 지훈련 및 다목적 공간 조성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실외 인라인경기장을 전면 개선하고, 기 초보강 공사과 지붕 설치, 관람석 보수 등 주요 기반 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선수 들이 기상 여건과 관계없이 훈련할 수 있 는 전천후 전지훈련장으로 만들 계획이 다.

동시에 각종 인라인 대회와 대규모 전 시·공연·축제 등 다양한 행사 개최가 가 능한 다목적 공간으로도 활용될 전망이 다.

이번 공모 선정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주시갑) 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 지원에 따른 것으 로 확인됐다.

/정소민 기자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이주명, 이 하 '한농대')는 지난 4일 '한농대 상생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해 첫 협 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대학의 경영진과 공 무직, 청원경찰 등 비공무원 직원들 이 참여해 대학 주요 현안을 공유하 고, 직원 애로사항 청취, 근무 환경 개 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발족됐다.

협의회에는 대학과 비공무원 직원 들이 각 10명씩 동수로 참석했다.

대학에서는 총장과 부서장, 담당 팀

공무직·청원경찰 직원과 소통 강화 장 등이 참여하며, 비공무원 직원 측 에서는 환경·조리·사무·실습관리·청 원경찰 등 직종별 대표가 참여했다.

> 대학에서는 앞으로도 분기별 1회의 정례 협의회를 개최해 상생 조직문화 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이주명 총장은 "한농대의 설립목적 인 농어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공무 직, 청원경찰 등 직원들의 역할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의체를 계기로 한농대 내에서 상생의 조직문 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 다.

/정소민 기자

바이오진흥원, 전북 농식품 美 수출 실전형 지원

H마트 바이어 초청 상담회 · · 전북 농식품 북미시장 진출 확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 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 원)은 5~6일 양일간 전북바이오융합산 업진흥원 비즈니스센터에서 미국 최대 아시안 식품 유통체인 H마트(H-Mart) 본사 바이어들을 초청해 '미국 H마트 바 이어 초청 전북 농수산식품 수출상담회 를 개최했다.

H마트는 미국 16개 주와 캐나다, 런던 등에 약 9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연간 약 26억달러(한화 약 4조5000억원)의 매 출을 기록하는 북미 최대 아시아 식품 유 통망으로 다양한 아시아 식문화를 북미 시장에 소개하며 현지 소비자들에게도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

이번 상담회는 전북 식품기업 북미시 장 진출 확대와 안정적인 수출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마련됐다.

도내 농수산식품 기업들이 H마트 본사 바이어와 직접 만나 제품을 소개하고, 시 장 경쟁력과 진출 가능성에 대해 심층적 인 피드백을 받는 실질적 비즈니스 미팅 형태로 진행됐다.

참여 기업들은 제과, 떡, 유아식, 간편 식, 발효식품, 소스류 등 다양한 품목을 선보였으며, H마트 바이어들은 현장에서 직접 제품을 시식하고 포장·유통 적합성, 가격경쟁력, 품질관리 수준 등을 세밀히

또 제품 현지화 전략, 미국 내 규제 및 라벨링 기준, 유통채널 진입 절차 등 실 무적인 조언도 함께 제시했다.

이번 상담을 통해 일부 기업들은 테스 트 입점 및 샘플 납품 협의 등 구체적인 거래 논의가 이뤄졌다.

H마트 측에서도 "전북 지역은 전통식 품과 프리미엄 식품 등 품질 경쟁력이 높 은 제품이 많다"며 향후 제품군 확장에 전북 기업 제품을 검토하겠다는 의시를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도내 기 을 위한 실질적인 연결 통로를 계속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H마트 본사 바이어들을 초청해 '미국 H 마트 바이어 초청 전북 농수산식품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업들이 미국 유통현장의 니즈를 직접 체 감하고, 글로벌 마켓 진출 전략을 구체화 할 수 있었던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 며"앞으로도 유망 해외 유통기업과의 연 계를 지속 확대해 전북 식품의 해외 진출

하겠다"고 강조했다.

바이오진흥원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미국 내 주요 유 통망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북미시 장 내 브랜드 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기안전공사, 도서지역 전기설비 개선 활동

부안군 위도 일대 섬지역 환경정화·안전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 는 5일 전북 부안군 위도 일대에서 수협중앙회와 함께 '도서지역 전기 설비 개선·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

이번 행사는 섬지역 주민 전기안 전 확보를 위해 진행됐다.

도서 지역 전기설비는 부식 속도 법"이라며 "특히 재난 발생 시 접근 가 빠르고, 전선에 쌓인 이물질로 인 한 화재(트래킹 화재)의 위험이 육 지지역보다 높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날 위도 내 치

도마을을 방문해 노후주택 3가구를 대상으로 LED 전등 교체와 전선·차 단기 등 설비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이어 오후에는 인근 위도 해수욕

장 등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 활동 도 진행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 은 "재난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예 측할 수 없는 탓에 위험 요인을 미 리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

성이 떨어지는 도서 · 산간 지역의 설

비 개선은 실질적 재난 예방의 첫걸

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집트, 사회보장 분야 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 연금제도 정책·공동연구 등 협력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이 다. 하 공단)은 이집트 사회보험청(NOSI, National Organization for Social Insurance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과 연금제도 및 사회보장 분야 협력 강화 위한 양해각서(MOU)를 지난 할 계획이다. 4일 체결했다.

이집트 사회보험청은 연금제도를 포 함한 사회보험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기관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양국의 사회보장제 있다. 도 발전과 행정역량 강화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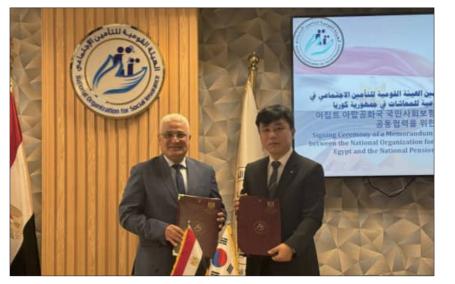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15년 기획재정 부 주관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 연금제도 관련 연수에서 인연을 맺은 다.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계기로 △연 금제도 운영 경험 \triangle 정책 정보 공유 \triangle 인력교류 \triangle 교육 \triangle 훈련 \triangle 공동연구 등 실질적 협력체계를 지속 확대하기로 했

공단은 또 이집트 사회보험청 임직원 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급여 △ 제도운영 및 개혁사례 △사회보장협정 등을 주제로 한 연수 프로그램도 진행

국민연금은 현재 우리나라와 이집트 가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교류의 확대가 사회보장협 정 체결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공단은 이집트 외에도 2013년부터 베 트남·필리핀·키르기스공화국 등 32개 국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82회에 걸쳐 1255명에게 제도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



국민연금공단은 이집트 사회보험청과 연금제도 및 사회보장 분야 협력 강화 위한 양해 각서를 지난 4일 체결했다.

금 운영 경험을 전파하고 각국의 사회 보장제도 발전에 기여해 왔다.

김태현 이사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 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은 한국의 국민연 결에 따른 양국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한층 공고히해 앞으로도 여러 국가들과 의 제도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

/성소빈 기사

농식품부, K-푸드 시장 다변화 발판 마련

K-푸드+ 수출상담회 개최

남구 코엑스에서 '푸드위크 코리아 2025'와 연계해 'K-푸드+ 바이어 초 Food+)를 개최했다.

위해 전 세계 42개국 316개社(해외 바 다. 이어 89개社, 국내 수출기업 227개社) 가 한자리에 모여 총 1649건 110백만 불 규모 1:1 수출 상담을 실시했고, 이 중 35건 약 12백만불 규모의 업무 협약(MOU)가 체결돼 전년도 9백만 불 대비 약 30% 증가한 실적을 기록

농식품 분야는 떡볶이, 만두, 막걸 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리, 포도, 인삼 등 28건 8백만불, 외 (MOU)을 체결했다.

이번 상담회에 농식품 수출기업들

은 최근 K-콘텐츠를 통해 더욱 인기 를 끌고 있는 냉동 김밥부터 저당 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킨 소스 등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농식품부)는 10월 29일~31일 서울 강 제품을 선보였으며, 외식 분야는 우 리나라 맛집 가이드인 '블루리본 서 베이'에 등재된 갈비, 국내외 7백여개 청 수출상담회'(BKF+, Buy Korean 매장을 보유한 치킨 전문점까지 경쟁 력 높은 K-외식 프랜차이즈 업체가 농식품과 농산업 분야 수출 확대를 참여해 해외 바이어의 눈길을 끌었

> 미국의 월마트, 숍라이트 등에 납품 하고 있는 바이어는 "지난해 한국산 수삼(인삼) 검역 타결로 인삼 제품을 찾고 있던 상황에서, 이번 상담회를 통해 GAP인증을 보유한 고품질 수삼 수출업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했다"며 "향후 FDA 사전등록 등 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수출 식 분야는 종합 분식, 돈까스 등 3건 상담회를 통해 수출기업들이 시장을 1백만불, 농산업 분야는 수직농장 솔 다변화하고 K-푸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루션 등 4건 3백만불 규모 업무협약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발판 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전북은행 '최고 연 2.72%' 금리 특판 예금 출시

마케팅 동의 시 우대금리 창립 56주년 한정 판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 은 창립 56주년을 맞아 '56th 창립기념 진심+ 특판 예금'을 5일부터 한정 판매 한다.

감사와 진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 2.60%, 12개월 연 2.62%이다. 련한 이번 특판 예금은 마케팅 동의만 우대 조건이 가장 큰 특징이다.

가입 시 별도의 복잡한 조건 없이 최 리를 받을 수 있다. 고 연 2.72%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 마케팅 동의를 하면 0.10%의 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간단한 우대금리가 더해져 최고 3개월 2.60%, 6 맞아 고객과 함께 한 시간의 의미를 되

가입기간은 3개월, 6개월, 9개월, 12 전 시 조기 종료되며, 가입대상은 개인 양한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개월 중 선택 할 수 있으며, 기본금리는 및 개인사업자, 일반법인으로 가입액은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립 56주년을 기념하며 고객들에게 각각 3개월 연 2.50%, 6개월 9개월 연 계좌당 100만원 이상 고객당 50억원을

한도로 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창립 56주년을 택을 담은 특판 예금을 선보이게 됐다" 총 판매한도는 3000억원으로 한도 소 며 "앞으로도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다

/정소민 기자

'전통'과 '창업' 연결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 개최

뷰티·헬스케어 등 7개 테마로 체험존 운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전북지역본부는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 (이하 전북청창사) '2025, Youth Startup Festival'을 5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과거로부터의 '전통'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창업'을 연결해 전 북청창사 15기 입교생들이 한 해 동안 준비해 온 창업 아이템을 검증받는 자 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 전시는 '7개 테마, 7번의 경험'을 주제로 뷰티, 헬스케어, 푸드 등 테마별 체험존을 운영했다.

전주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입교생 의 제품과 기술력을 자연스럽게 즐기고 참여자는 QR코드를 통해 베스트기업

에 모의 투자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며 응원하는 방식으로 이어지면서, 시민과 관광객이 청년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함께 평가하며 지역 청년기업의 잠재력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다.

또 전북청창사 14기 졸업생이 직접 쇼 호스트로 참여하는 라이브커머스를 통 해 입교생 제품을 전국에 알리는 판로 확보채널을 운영했고, 대기업 홈쇼핑 MD와 벤처캐피탈 투자자(8명) 등 전문 가가 참석하는 파트를 마련해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실제 유통 진입과 후속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는 "오늘 행사로 전북 청년기업들은 자신의 가치 를 증명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 를 마쳤다"며 "전북청창사는 사업화지 경험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마련했다. 원 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기업이 선택 받는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



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전북청창사는 2018년 개소 이후 현재 까지 340명의 청년창업 CEO를 육성했

이들의 누적 매출은 1,042억 원에 달 매김하고 있다. 하며, 78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전북청창사는 아이템 발굴, 시제품 제 작, 판로개척, 투자 연계, 후속성장 지원 까지 창업 전 과정에 걸친 지원 체계를

통해 전북지역 청년창업의 허브로 자리

/정소민 기자

전북농협-전북지리산낙농농협 '해피컨설팅' 실시

축산농업인 생산성 향상

지리산낙농농협(조합장 김재옥)은 4일 전북지리산낙농농협 본점에서 축산농 가 50여명을 대상으로 '해피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전북지리산낙농농협 조합원 중 청년·후계 축산농업인을 대 상으로 환절기 사료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양관리 교육을 실시하 고, 세무특강을 제공해 유익하고 즐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운 시간을 가졌다.

'해피컨설팅'은 전북농협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를 맞아 축산인의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전북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고, 희망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 기획했으며, 2025년에는 경영(경제특강), 신바람(마술, 레크레이 션), 세무(세무특강)로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

> 이정환 총괄본부장는 "이 사업을 통 해 농업인들이 잘 살고,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함께 웃 고, 성장하는 전북농협을 만들기 위해

/정혜민 기자

5

전북교육청, 지역 네트워크 협력체계 강화

내년 3월 학생맞춤통합 지원법 시행 앞두고 관계기관 워크숍 열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맞춤통 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단위 협 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5일 전주 더메이호텔에 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지역 네트워크 구 축 워크숍'을 열고, 학교 중심의 지역 연 계형 학생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 했다.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대비

해 마련된 자리로, 학생의 학습·복지·건 강·진로·상담 등 다각적 영역에서의 맞 춤형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업 기반을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14개 교육지원청 을 비롯해 시·군청, 경찰서, 정신건강복 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족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복지관 등 관련 기관 의 실무자 1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 들은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체계 구축 을 중심으로 학생 지원의 새로운 패러다 임을 모색했다.

워크숍은 전북교육청의 학생맞춤통합 이번 워크숍은 내년 3월 1일부터 전면 지원 정책 추진 현황 안내를 시작으로, 전 삼정중학교 이돈집 교사의 '학생맞춤

통합지원 이해 및 우수사례' 발표, 기관별 역할 인식과 협업 방안 논의, 지역별 실 행 전략 수립 등으로 이어졌다. 소규모 그룹별 토의와 전체 공유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실천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을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기 관이 연계·지원하는 통합 모델을 현장 중심으로 논의하며, 각 기관 간 협업의 실질적 방향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과 정보 공 유 채널 구축의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오선화 전북교육청 미래교육과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교의 힘만으 로는 완성될 수 없는 정책이며, 지역 사회 전체가 학생의 성장을 함께 책임 지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정례적인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위기학생 조기발견과 맞 특히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 춤형 지원이 한층 강화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전북교육청 은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 구조를 정례화하고, 학생 중심의 통합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 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 연계와 행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 > /최성민 기자



전북대 '지속가능사회와 생활과학' 학술대회

미래 사회 대응 전략 논의

전북대학교 인간생활과학연구소 (소장 노정옥 교수)가 '지속가능사 회와 생활과학'을 주제로 학술대회 를 개최한다. 4일 막을 올린 이번 행 사는 '2025 JBNU Research Fair'와 연계해 식품영양학·의류학·아동 학·주거환경학 등 4개 분과가 참여 하는 통합 학술세미나 형태로 열린 다.

전북대 인간생활과학연구소는 이 번 학술대회를 통해 학문적 성과를

지역사회 실천으로 확산하고, 생활 과학 기반의 융합형 연구·교육 모델 을 정립함으로써 전북대학교 글로 컬대학 전략에 부합하는 지속가능 한 연구・교육 체계 구축에 나설 계 획이다.

노정옥 인간생활과학연구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각 분과의 전문성을 융합하고, 지역사회와 연 계된 실천적 연구의 방향을 함께 모 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

/최성민 기자

'2025 전북 학생자치 페스타' 성황리 개최

학생 중심 민주학교 문화 확산의 장 열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최한 '2025 전북 학생자치 페스타'가 5일 전 주학생교육문화관 대공연장에서 열렸

이번 행사는 '자치를 배우고, 가치를 나누다'는 슬로건 아래 학생이 직접 기 획·운영·발표 전 과정에 참여한 도내 최초의 학생자치 행사로, 제96주년 학 생독립운동기념일(11월 3일)을 맞아 진 행됐다.

특히 제96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일 (11월3일)을 맞아 도내 초중고 학생회 장단, 학생자치 담당교사, 학부모 등 6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학생자치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

행사는 전라고 '소화기'밴드의 힘찬 축하 공연으로 시작해 2025년 학생자치 활성화 기여 학생 표창장 수여, 학생자 치 운영 사례 나눔, 전북학생의회 의정 활동 공유, 연극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학생자치 운영 사례 나눔에는 △익산 초(건강하고 민주적인 선거와 활동) △ 전주동중(가치로 엮은 학생자치 존중・ 환경·연대) △전주근영여고(자치로 바 꾸는 학교, 리:빌드 프로젝트)가 참여해 1년 간의 자치 경험과 성취를 공유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다른 학교 학생 대표들과 직접 만나서 운영 사례 를 나누니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배울 점도 많았다"는 소감을 전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생독립 운동기념일을 맞아 전북 최초로 학생자 치 페스타를 열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이번 행사가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최한 '2025 전북 학생자치 페스타'가 5일 전주학생교육문화 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치를 배우고, 교육의 주체로 성장하는 다.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중등 학생평가 공정성·신뢰도 확보한다

성적관리 체계 확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5일 본청 창조나래 시 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각실에서 도내 고등학교 교감 및 평 가업무 담당교시를 대상으로 '학생평가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학 입시에서 바라본 성취평가제 △학업 성적시행 관리지침의 중요성과 학생평

학생평가 역량 강화 연수 가 유의사항 △서 ·논술형평가 시대, 학 교 평가관리체계의 변화와 대응 등에 대해 각각 안내했다.

> 도교육청은 이 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 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대한 이해 를 돕고, 책임 있는 성적관리 체계를 확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평가가 교육 의 신뢰를 세우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학 교 현장의 평가체계를 혁신하고, 교원들 도교육청 업무담당 장학사들이 △대 이 평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군산대, 진로·취업지원 'DO:DREAM' 열려

국립군산대학교(총장직무대리 엄 기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기욱)는 오는 6일까지 이틀간 교내 제 5일 밝혔다

이번 잡페스티벌은 국립군산대의 대표 여했다. 행사 중 하나로 지난 2018년도부터 시작 해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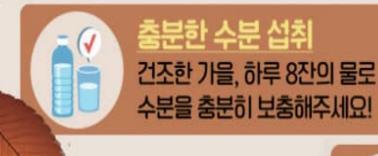
올해는 제41대 총학생회와 함께하는 행 을 반영해 JOB을 찾기 위해 잡페스티벌 을 두드린다는 개념과 DREAM JOB을 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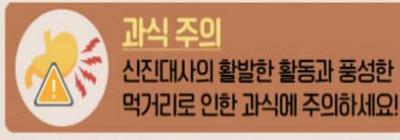
특히 전북은행, 새만금개발공사, 전기 1학생회관 앞 광장에서 재학생 및 졸 안전공사, 현대자동차, 오뚜기, 건강보험 업생의 진로탐색과 취업지원을 위한 심사평가원, HD현대이엔티, 세아베스틸 세아씨엠, 로얄캐닌 등 공기업 및 공공 기관, 대기업, 지역 우수기업이 함께 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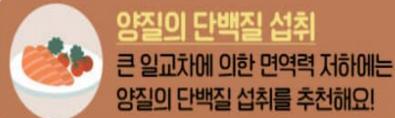
국립군산대 오연풍 학생처장은 "학생 들이 잡페스티벌을 계기로 좀 더 다양한 분야에 도전할 수 기회가 됐으면 좋겠 사로 총학생회의 슬로건인 'DO:DREAM' 다"며 "향후 다양한 진로 및 취업 서비스 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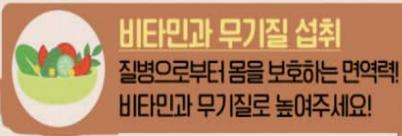
/최성민 기자













군산시립예술단, 12월 18일 '2025 송년음악회' 개최

가는 해를 아쉬워하고 오는 새해에 설레 는 12월, 군산시립예술단이 '2025 송년음악 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연은 오는 12월 18일 오후 7시 30분, 군 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군산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 창단이 함께 꾸미는 합동 무대로, 한 해 동 안 보내준 시민들의 성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음악으로 따뜻한 연말의 감동을 선 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명근 상임지휘자의 지휘 아래 웅 장한 오케스트라의 선율과 풍성한 합창의 화음이 어우러져 감동과 환희의 무대를 선 보인다.

여기에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트 럼펫 연주자 성재창이 협연자로 함께한다. 음악회의 플레이리스트 면면도 화려하

크리스마스 시즌의 대표 클래식인 차이 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트럼펫의 화려 한 기교와 오케스트라의 생동감이 돋보이 는 '랩소디 인 블루' 등 다채롭게 구성됐다.

군산예술의전당 심종완 과장은 "이번 송 년음악회는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시민 여러 분의 성원에 음악으로 따뜻한 감동을 전하 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온실가스 감축 실천 중심형 농업교육 시작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농업분야 온실가 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 해 '친환경농업(저탄소농업)교육'을 시작했 다.

지난 4일 농업기술센터 1강의실에서 시 작된 이번 교육에는 친환경유기농연구회 와 친환경농업에 관심있는 농가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총 4회 과정으로 오는 12일 까지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토양미생물 의 이해 △유용미생물의 활용 등 저탄소농 업 실현을 위한 실천 중심형 교육으로 구성

교육 첫날인 4일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 고 탄소저감형 영농을 실천하기 위한 토양 미생물의 이해와 활용을 중심으로 다뤘다.

토양 내 탄소저장 기능을 높이고 온실가 스 배출을 줄이는 저탄소농업 실천방안이 중점석으로 논의됐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 을 통해 농업인 스스로가 탄소저감형 영농 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친환경·저탄소농업 확산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사회복지 컨퍼런스 개최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가치 나눠

익산시가 지역사회 복지공동체의 의미와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했다.

익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성시종·정헌율)는 5일 익산시청소년수련 관 다목적홀에서 '2025 익산시 사회복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1부 기념식에서는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 한 6명의 유공자에게 표창이 수여됐으며, 제6~10기 공공위원장으로서 지역복지 발 전과 협의체 활성화에 기여한 정헌율 익산 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2부에서는 익산시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 체 다음세대분과 주관으로 '토닥토닥! 우리 마음 건강 어때?'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전 문가 2명이 참여해 청소년 도박과 약물 중 독 문제를 주제로 이해·예방·극복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어 실무협의체 교육기획분과 주관으로 제3회 민관협력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진행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 민과 사회복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 며 함께 성장하는 복지공동체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익산시가 시민 한 사람 한 사 람의 삶을 세심히 살피는 따뜻한 복지도시 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목포 국가철도망 지자체 공동대응

고창·군산·부안·영광 함평 5개 시·군 단체장 사업반영 건의

군산시는 전북 군산에서 전남 목포를 연결하는 서해안철도(군산목포선) 건 설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26~2035년)에 반영되기 위한 지역 차원의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활동의 하나로 군산시는 5일 부안군·고창군·함평군·영광군 단체장 들과 함께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면담,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적극 건의

서해안철도 노선은 총 연장 110km, 총 사업비 4조 7919억원 규모로, 서해선(서 화성~홍성)과 장항선(홍성~군산), 새만 금선(군산~새만금)을 잇는 서해안 철도 축의 마지막 단절구간을 메우는 핵심 구 간이다.

그러나 현재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 망구축계획(2021~2030년)에는 서해안 철도 사업이 '추가 검토사업'으로만 돼 있어 제5차 계획(2026~2035년)에서는 '신규 사업'으로의 반영이 절실한 상황 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에서 목포까 지 서해안철도가 건설된다면 서해선~장 항선~새만금선~서해안선으로 이어지는 군산 중심의 서해안 남북축 철도가 완성 된다"라며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서해 안지역 주민의 인적・물적 교통편익이 크 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을 마친 후에도 협의회는 향

후 정례적인 간담회와 정책 건의, 국회 정부 협의, 범국민 홍보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서해안철도 반영을 위한 전략 적 활동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군산시 역시 다른 지자체와 함께 서해 안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담길 수 있 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다이로움 결제액 446억 기록

전달 대비 19% 증가 축제·소비 촉진 정책 성과

익산시가 시·군 통합 30주년 기념 시 민화합대축전의 일환으로 추진한 다양 한 소비 촉진 정책과 축제 행사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실질적인 성 총 발행액은 551억 원으로, 올해 들어 가 과를 거뒀다.

5일 익산시에 따르면 10월 한 달 지역 사랑상품권 '다이로움' 결제 매출액이 446억 여 원을 기록했다. 시가 지난달 국 화축제 등 대규모 행사를 집중 개최하고 이와 연계해 지역사랑상품권 '다이로움' 특별 혜택 행사들 진행한 결과다.

이는 전달인 9월(375억 원) 대비 71억 다. 원(19%), 지난 8월(310억 원) 대비 136

활성화 전략이 실제 매출로 이어진 사례

다이로움 충전액도 크게 늘었다. 10월 한 달 소비자 직접 구매를 통한 다이로 움 발행액은 541억 원으로, 전월(401억 원) 대비 약 35% 급증했다. 여기에 지급 형 발행액 10억 원까지 더해지며 10월 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러한 소비 활성화는 익산시가 시민 화합대축전과 연계해 추진한 한시적 구 매 혜택과도 연결된다. 시는 10월 한 달 간 다이로움 구매 한도를 월 100만 원으 로 상향하고, 인센티브율도 13%로 확대

억 원(44%) 증가한 수치로, 지역 내 소비 까지 '코리아 그랜드 세일' 기간 결제금 대를 모은다.

액의 5%(60만 원 한도)를 정책 수당으로 추가 지급하는 등 최대 28%까지 가능한 추가 혜택도 이어가며 다이로움 인기를 견인하고 있다.

다양한 축제와 행사도 소비 확대에 힘 을 보탰다. '익산천만송이 국화축제'는 76만여명, '마한문화대전'은 2만 3,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반려동물축 제, 돌문화축제, 보물찾기축제, 익산북페 스티벌 등도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끌 며 지역 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다 이로움 발행액은 3,767억 원에 이르며, 연말까지는 4,500억 원 돌파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위축된 내 수 시장을 회복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 여기에 더해, 10월 29일부터 11월 9일 대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 미식관광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12월 1일까지 응모

군산시가 지역의 미식자원을 활 용한 관광 활성화와 새로운 미식 관광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2025 군산 미식관광 사업 아이디 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군산의 음식문화 와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창의 적이고 실현가능한 미식관광 특화 사업을 발굴해, 관광객에게 색다른 미식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응모 기간은 12월 1일 정오까지 이며 개인, 기업 및 단체(4인 이내)

등 전국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군산의 미식자원을 활용해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행사 사업이다. 세부적으로는 △군산 주요 관광 지와 연계한 프로그램 △군산의 미 식 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프로그램 △군산에서만 즐길 수 있는 고유 음식 및 지역특산물 연계 프로그램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누 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 으며, 신청은 이메일(qhfma789@ korea.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환경친화도시로…청소 행정 강화

자원재활용 등 행정력 집중

익산시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 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 행정 강화에 나선다.

김형훈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장은 선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5일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깨끗한 도 시환경 조성 △자원재활용 촉진 등 3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하 고 있다고 발표했다.

우선 시는 시민이 깨끗한 생활환경 을 누릴 수 있도록 쓰레기 종량제, 노후 슬레이트 철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영농폐기물 처리 등 사업에 올해 346억 원을 투입해 청결한 도시환경을

특히 2024년 집중호우 당시 발생한 은 익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수해 폐기물 2,600톤을 국비 10억 원을

확보해 처리하기도 했다.

농촌지역의 환경 보전에도 힘썼다. 슬레이트 철거 318동, 영농폐비닐·농약 빈병 수거 보상금 지원, 생활폐기물 거 점배출시설 설치 등으로 농촌 환경 개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자원재활 용 확대에는 146억 원이 투입됐다. 올 해 시는 투명페트병 189톤, 폐건전지 13톤, 종이팩 27톤을 수거하며 재활용 률을 높였고, 공동주택 47개소에 음식 물쓰레기 개별 계량장비를 교체·설치 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유도했다.

김형훈 녹색도시환경국장은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실천하는 지속 가능 한 청소 행정을 통해 깨끗하고 살기 좋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도심 속 '녹색 쉼터' 일상화

도시·정원·복지 기능까지 특색 있는 도시숲 확장

익산시가 도심 속 숲을 통해 일상 속 녹색 쉼터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단순 입체적 경관을 연출했다. 한 나무 심기를 넘어 시민 삶의 질을 높 이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녹색도시'로 우수시례 공모'에서 산림청장상을 수상 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김형훈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장은 5 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총 42ha, 91곳 에 도시·정원·복지 기능을 갖춘 특색 있 는 도시숲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특색 있는 숲을 곳곳에 새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인화동 폐

롭게 선보였다. 우선 남부권 대표 숲인 시숲이 새롭게 조성됐다. 낙우송과 메타 세쿼이아, 억새 등 다양한 수종과 초화

하며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황등면 석제품전시홍보관 일원에는

석재 전시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0.5ha 규모의 정원형 숲이 들어섰다.

시는 녹지축을 연결하는 도심형 숲길

철도 부지에는 전라선 폐선 구간을 활용 유천생태습지에 1ha 규모의 정원형 도 한 4ha 규모의 기후대응 도시숲이 조성 되고 있다. 시는 내년에도 도시 곳곳에 새로운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용제동 류를 식재해 생태하천과 숲이 어우러진 대간선수로 일원(2ha), 신흥공원(1.7ha) 등에 기후 대응 도시숲을 새롭게 조성하 특히 이 숲은 '2025 산림청 녹색도시 기 위해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 김형훈 녹색도시환경국장은 "숲이 일 상이 되는 자연친화도시 익산을 목표로 시민 가까이에서 숲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도시 전체에 생태 녹지를 확장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익산 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간부 공무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위해 정읍시가 간부 공무원 교육에 나 로 강연했다. 유 원장은 성인지 감수

예방교육을 실시, 관리자로서의 역할 과 책무성을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여성가족부 2025년 폭 력예방교육 운영지침에 따른 정부지 성의 차이로 의도치 않은 오해나 불편 침 실천의 일환으로, 이학수 시장을 포 함의 간극을 좁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 함한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 다"라며 "관리자로서 한층 성숙한 인 육으로 진행됐다.

초청 강사로 나선 유정흔 젠더십향 다. 상 교육원 원장은 '건강하고 안전한

공직사회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조직문화, 우리가 만듭니다!'라는 주제 성의 중요성 및 고충처리 시 관리자의 시는 5일 간부 73명을 대상으로 건 역할과 책무성을 강조했다. 특히 질의 강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주제로 한 응답을 통해 성희롱 예방과 관련된 궁 금증을 해결하며 공감과 이해의 시간 을 가졌다.

이학수 시장은 "공직사회에서 감수 식과 태도를 갖춰 나가자"고 당부했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지방재정혁신 모범도시' 자리매김

지방재정전략회의서 재정운영 우수사례 발표

정읍시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 국제 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재정전략회 의'에 참석해 지방재정 운용 우수시례를 발표하며 재정혁신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로, 지방재정국장, 지역경제지원국장, 전 심의 강화 등 효율적 재정운영을 통한 국 17개 시·도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 재원 확보 사례를 소개했다.

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및 '2026년 지방 재정 운용방향' 등을 논 수 있는 민생지원 사업과 미래산업 육 의했다.

적인 예산집행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가능한 혁신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전국 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조직 효율화 및 예산 절감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학수 정읍시장 은'시민을 위한 절약, 미래를 위한 투자' 이번 회의는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 를 주제로 조직개편과 관행타파, 사전

시는 절감한 예산을 시민이 체감할 성 사업에 재투자하며 재정건전성과 정읍시는 합리적인 재정운영과 효율 민생경제 회복을 동시에 이끄는 지속

> 이학수 시장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 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치 있게 쓰이도 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절약, 미래를 위한 투자를 시정의 중심 에 두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빈집정비사업 '순항' 올해 64개소 정비

군산시가 진행중인 빈집정비사업이 하는 방치빈집정비사업의 경우 호당 순항 중이다.

시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 해 관내의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빈 집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

도시 및 농어촌지역 내 1년 이상 빈집 이 대상으로 호당 300만 원, 슬레이트 중이며, 11개소는 철거 준비 중이다. 건물은 400만 원의 철거지원금이 지 급된다.

비용도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노후·위험 빈집을 철거해야

400만 원, 슬레이트 건물은 500만 원 으로 100만 원씩 철거지원금을 추가 지원해 소유자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 도하고 있다.

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해 작년에는 빈집 61개소를 정비했고, 올해는 64개 먼저, 도심·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소를 대상으로 정비를 진행 중이다. 이 중 53개소는 이미 철거 완료 및 철거

시 관계자는 "남은 11개소의 철거도 차질 없이 진행해 군산시 도시미관을 해체 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신고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 선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김제시, K-종자 글로벌 진출 '첫발'

글로벌종자생산물류 거점조성 · · 2032년까지 국비1,683억원지원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글로벌 종자 생산・뮬류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 기 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를 통 과하며 농업혁신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시는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 업'이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 제10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예비타 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기후위기 및 선진국의 첨단육종 투자 확 다. 대 등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종자산업 환 경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차에 걸친 사전용역을 통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여왔다.

이 사업은 백산면 민간육종연구단지 인근 구)공항부지에 첨단정밀육종연구 센터, K종자비즈니스센터, 스마트온실 등 첨단연구·Biz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국가철도망 반영 요청

국도 현안사업 협조 요청

권익현 부안군수와 4개 지방자치단

체장(군산시장·고창군수·영광군수·함 평군수)은 5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을 면담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

획(2026~2035년)에 서해안(새만금~목

포) 철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권익현 군수 등은 새만금(군산·김제

시)~부안군~고창군~영광군~함평군~

목포시를 연결하는 서해안 철도는 대

한민국 서해랑길에 U자형 철도망 구축



새만금 종자생명단지에 스마트 유통센 터, 종자기업에 임대·분양해 글로벌 종 자 생산·물류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김제시를 국내 종자산업의 연구·생산· 유통을 아우르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 고, 스마트 농업·바이오 기술·글로벌 네 트워크가 융합된 농업혁신도시로 도약 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권익현 부안군수, 서해안철도 국토부 건의

으로 지역주민 및 탐방객 편익 증진과

국가산업망에 크게 기여될 수 있도록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서해안 철도망 구축은 중국 및 동남

아시아의 국내·외 무역 전진기지로 담

당할 것으로 기대되며 예비타당성 면

제사업 추진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지

또 권익현 군수는 국도77호 노을대교

왕복 2차선을 왕복 4차선 도로 및 인도

와 자전거 도로 설치로 익스트림 관광

형 노을대교로 변경, 국도23호 왕복 2

차선 구간(유정~고잔교차로) 5.9Km를

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수적이다.

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사업비 1,738억원 중 국비 1,683억원 을 지원받아 오는 2028년부터 2032년까 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은 민간육종연구단지를 확장해 김제시를 명실상부한 종자산업 의 메카로 육성하고, 종자산업의 중심도 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 단추이자 새로운 시작점 "이라며"김제시를 K-종자의 심 장으로 성장시켜,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 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왕복 4차선으로 변경, 새만금 7공구를

RE100 산업단지로 변경, 국도30호(보

안~진서) 위험도로 선형 개량 등 부안

군 현안사업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권익현 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전

라남도 서해안 및 새만금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대

한민국 서해랑길에 U자형 철도망 구축

으로 익스트림 관광형 새만금 국가항,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국가산업단

지, 목포항의 물류 교통, 2036 하계 전

주올림픽 성공 유치와 관광산업 활성

/부안=신상수 기자

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

총사업비 82억원 확보

부안군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 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회복형)에 전북특별자치도에 서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군은 총사 존회복을 도모할 예정이다. 업비 82억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개년에 걸쳐 모항과 도청항을 중심으로 모에 선정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SOC 구축, 안전방재 인프라 및 어업기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고령화, 어업환경 변화 등으로 침체된 어 존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사 업으로 어촌 인프리를 종합적으로 고도화해 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하 표로 하고 있다.

공동이용시설 및 생활 SOC 확충, 호안 및 진입로 정비 등 안전방재 인프라 구축, 어항 및 어업기반시설 보강 등 어촌의 일상생활과 생업 기반을 함께 개선하는 종합적인 어

특히 군은 이번 어촌회복형 어촌 신활력증진사업과 더불어 앞서 공 (유형1), 변산·궁항권역 어촌신활 력증진사업(유형2) 등과 연계해 지 역 해양・어촌 발전의 시너지 효과 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어촌회 복형 사업 선정을 통해 주민이 체 감할 수 있는 정주환경 개선과 어 업활동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어 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을 목 촌이 단순한 생업 공간을 넘어 살 고 싶은 어촌, 돌아오는 어촌으로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모항과 도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청항 일원 어촌마을 정주환경 개선, 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간담회

독립유공자 발굴 등 적극 추진

고창군이 지난 4일 군수실에서 제 80주년 8.15 광복절을 계기로 서훈이 수여된 고창 출신 독립운동가 등 5인 의 후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고창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동맹휴학과 광주학생운동에 호응 하는 만세운동 등 항일 독립운동에 잠여한 고장 줄신 인물들의 공훈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 다"며 "그 뜻을 잊지 않고 군민 모두 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천(전북 김제), 곽길수(전북 정

읍), 이은숙(경기 용인), 박부길(서울), 오흥탁(전북 고창) 선생의 후손 12명 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서훈은 고창군이 2023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독립유공자 발 굴 및 서훈 신청 사업의 결실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을 찾아주 신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 며, 선열들께서 보여주신 나라사랑의 마음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 가 함께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젊은 귀농귀촌활동 거점 '우덕마을' 7일 문화 축제 개최

부안군 상서면 우덕마을에서 오는 7일 '우덕문화축제'가 개최된다.

우덕마을은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하고 있 는 귀농귀촌 둥지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도 시 청년들이 내려와 젊은 귀농귀촌 세대를 유입하고 활동 거점이 될 둥지마을을 만들 어 가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우덕문화축제' 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를 슬로건 으로, 세대 교류와 공동체 문화 확산에 중 점을 둔 행사다.

우덕문화축제는 두 가지 주요 프로그램 으로 진행된다.

첫째, '우덕 스테이'는 도시 청년들을 초 대해 둥지마을 게스트하우스에서 2박 3일 간 체류하면서 부안을 체험하고 축제에 침 여하는 교류형 체류 프로그램이다.

둘째, '소소한 동문회'는 마을 주민과 인 근 학교 동문들이 오랜만에 만나 졸업앨범 과 옛 사진을 보며 추억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정혜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사업 과 축제는 귀농귀촌 우수마을 발굴 및 홍 보, 지역 청년 활동 거점으로 활용돼 전북 도내 젊은 귀농세대 유입에 기여할 것"이라 며 "기록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마을이라는 비전 실현과 함께, 이번 축제가 진정성 있는 마을 문화축제로 오래 기억되 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보건소, 2025년 하반기 생애초기 엄마모임 마무리

김제시 (시장 정성주)는 2025년 하반기 '생애초기 엄마모임' 프로그램을 지난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보건소 모자보건 실에서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생후 4~10개월 영아 와 양육 중인 엄마 약 10팀이 참여해, 생애 초기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건강한 성 장환경을 조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영 아 CPR과 하임리히법 등 응급상황 대처법 (119 대응예방과 협조), 유아 식습관 지도 및 이유식 만들기 체험 등 실생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심리지원센터 전문상담사를 초빙해 진행한 '마음 챙김 기법'강의에서는 양육 스트레스 완화와 심리석 인성에 조섬을 밪 췄으며, 참가자들은 "양육 스트레스를 회복 하고 힐링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 을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고령자 주거·돌봄 서비스 확대

주거·의료·요양 등 맞춤형 노후 복지 실현

고창군이 고령자 복지주택을 중심으 로 주거와 돌봄 서비스를 연계한 시범 사업을 비롯해 맞춤형 돌봄과 ICT 응 급안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5일 고창군에 따르면 율계고령자복 지주택에 전체 128세대 중 110세대 (86%)가 입주 완료해 입주민의 건강 과 안전을 책임지며 통합돌봄 모델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주거인프라 연계 시범사업'으 로 아파트 안에 사회복지사와 생활지 원사, 간호인력을 배치해 안부·안전확

공·밑반찬 지원 등 돌봄·가사, 개인별 생활습관과 운동 교육 등 건강관리 서 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해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지역 맞춤 형 복지주거 모델로서 향후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고창군은 홀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노인 2251명을 대상으 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안정 적인 노후생활과 건강 유지에 힘쓰고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고창군은 단순 있다.

작년 대비 약 1000개의 일자리를 추가 돌봄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확보해 총 3741명의 어르신들이 노인

인, 24시간 응급관리, 말벗·건강정보제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 고 있다.

고창군은 경로당 양곡 지원에 있어서 도 기존 일괄 지원에서 회원 수에 비례 입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 한 차등 지원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 킬 수 있도록 공공 장사시설을 확충하며 품격 있는 장례문화를 실현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주거, 의료, 요양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 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보낼 수 한 복지를 넘어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또한, 올해 15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삶의 현장에 깊이 다가가는 사람 중심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5일 지방세 다.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 와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대대 적인 자동차 번호판 합동영치를 실시 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 등 강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액 2회 상은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 다. 상 체납이면서 60일이 경과한 차량이

조우형 세정과장은 "지방세와 세외 이상 또는 △1회이면서 다른 체납이 3 수입에 대한 납부 의식 고취와 지방 건 이상인 차량에 해당한다. 또한 차량 재정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한 영치대 지수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했다고 밝혔다.

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 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부안군, 국가예산확보 '총력'

국회 찾아 낚시복합타운 조성 등 주요 사업 건의

권익현 부안군수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연일 국회를 찾아 현안사 백산성지 역사문화권 및 역사문화공원 업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권익현 군수는 5일 국회를 찾아 한병 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부안군 핵심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요청했

제외되거나 반영이 미흡한 사업들에 대해 국회 단계에서의 증액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현재 군 주요 건의사업은 부안 진서

(300억원), 격포 여객선터미널 대체 건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어지는 고부가가 립(40억원), 줄포만 갯벌 식생복원(51 치 수산관광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 억원), 탄소중립 체험관 건립(192억원), 로 군은 이를 지역 어촌경제 회생의 핵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심과제로 삼고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 디스커버리센터 조성(134억원), 부안 조성(80억원) 등 총 6개 국가예산 사업 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며 부안의 미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 원 등을 차례로 만나 국가예산 확보 활 원을 요청했다.

특히 진서(왕포·작당마을) 낚시복합 이번 방문은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타운 조성사업은 수산자원 감소와 어 핵심사업들이 반드시 예산에 반영될 업소득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의 활력 회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국가예산 확보의 성패가 부안의 성장

다. 어업체험·낚시·해양레저를 연계한 흔들림 없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왕포·작당마을) 낚시복합타운 조성 신개념 해양여가 복합산업을 육성해

울이고 있다.

권익현 군수는 지난달 30일에도 국회 를 찾아 이원택 의원, 정청래 더불어민 주당 대표, 정대영 예결위원회 전문위 동을 펼친 바 있다.

권익현 군수는 "부안의 미래를 여는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줍하겠다"며 판을 결정짓는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지역 문화 예술인 활동 격려

고창문화원이 주관하고 전북특별자 춤, 댄스스포츠, 판소리 공연이 이어 치도, 고창군, 한국문화원연합회가 후 원하는 '제7회 고창문화원의 날' 행사 가 지난 4일 동리국악당에서 열렸다. 을 위해 노력한 지역 문화 예술인들 의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공 로로 표창패와 공로패는 고창문화원 있다. 조용호 부원장, 조기담 고창문화유산 탐방학교 단장, 안병철 이사, 이용철 이사, 김옥진 이사, 이주섭 이사가 수 존재가치를 높이며 지역에서 사랑받 상했다.

는 동래문화원에서 준비한 동래 학춤 상록수밴드, 경기민요 공연이 진행됐 라고 말했다. 으며, 고창문화원에서 준비한 전통 한

졌다. 고창문화원은 1963년 개관이후 지 역 문화창달의 거점이자 산실로 자리 이번 행사는 지역문화 계승과 발전 매김해 왔다. 지역문화 개발을 위한 향토문화연구발표회와 고창문화집 발간, 문화유적답사, 고창모양청소년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심덕섭 고창군수는 "제7회 고창문 화원의 날 행사를 통해 고창문화원의 는 향토문화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해 행사는 돈독한 자매결연을 맺고 있 가고 있다"며 "지역문화의 보존 및 전 승, 선양 활동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을 시작으로, 안산문화원에서 준비한 우리 고창을 빛낼 소중한 자산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문화관광재단, 전통·현대의 어울림 '가을음악회' 성황

고창문화관광재단이 고창의 가을 정취 속에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특별 한 '가을 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고창 전통예술체험마을 일원에서 진행됐으며, 약 200여 명의 관람 객이 참석해 고창 가을의 낭만과 감성을 만 끽했다. 특히 재단의 인바운드 관광사업과 연계돼 외국인 관광객들도 다수 참여해, 고 창의 문화와 전통을 함께 체험하며 색다른 문화 교류의 장을 이뤘다.

1부에서는 팝페라 앙상블 프로스트 (PROST)가 감미로운 클래식 선율과 대 중적 멜로디가 어우러진 공연을 선보이 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진 2 부 무대에서는 아시아월드뮤직 그룹 투론 (TURON)이 다채로운 리듬과 세계 음악의 색채로 고창의 자연과 어우러지는 환상적 인 무대를 펼쳐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번 행사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고 창의 문화적 매력을 한자리에서 느낄 수 있 는 축제의 장으로, 음악과 예술을 통해 지 역의 감성을 새롭게 조명했다는 평가를 받

조창환 고창문화관광재단 상임이사는 "이번 가을 음악회가 고창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뜻 깊은 무대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이 함 께 즐길 수 있는 고창형 문화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완주 구이장수모정, 컨테이너에서

완주군 구이면 어르신들의 따뜻한 사랑

방이자 공동체의 상징으로 자리해온 '구이

장수모정'이 새로운 보금자리인 정담센터 1

지난 2018년, 작은 컨테이너 한 칸에서 시

작된 구이장수모정은 당시 지역발전위원회

를 이끌던 이주갑 의원의 노력과 주민들의

구이장수모정은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담소를 나누고 안부

를 챙기며 구이면의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이주갑 의원은 "구이장수모정은 특정 마

을의 공간이 아니라 구이면 모든 어르신들

의 쉼터이자 소통의 장"이라며 "이번 이전

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이 편하게 찾을 수

이를 위해 최근에는 이주갑 의원 주재로

구이장수모정 이전 관련해 장수모정 박관

배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과 간단한 간담회

를 갖고, 추진 일정과 향후 운영 방안을 논

새롭게 이전할 정담센터는 구이면 중심

지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며, 내부에는

코인빨래방, 다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주민

소통공간 등이 함께 조성돼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

로 조성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의했다.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담센터 1층으로 '새 둥지'

층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정성과 참여로 만들어졌다.

이어가는 사랑방으로 성장했다.

2025년 11월 6일 목요일

완주군, 탄소·수소 융복합 도시 도약 '발판'

3기관 MOU···탄소·수소실증 결합 완주형 친환경 산업 생태계 구축

완주군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완주 수소연구원과 손잡고 탄소·수소 융·복 합산업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 하며, 수소경제도시 도약과 친환경 산 탕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업 전환의 발판을 마련했다.

5일 완주군은 완주군청에서 유희태 완주군수, 유경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장 대행, 이홍기 완주수소연구원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 소·수소 융·복합산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기업 기술지원 업무협약(MOU)'을 연구·시험·교육 기능을 아우르는 실증 체결했다.

소경제도시 전략의 핵심 기반을 강화 하고, 탄소 소재 기술과 수소에너지 실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탄소·수소 융· 복합기술 공동연구 및 실증사업 추진 다. △지역기업 기술지원 및 상용화 촉진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강화 △국가공모사업 공동 대응 등으로, 각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바

그동안 완주군은 수소용품검사지원 센터, 수소전기상용차 실증사업, 수소 버스 및 충전소 구축, 수소연료전지 실 험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수소산업의 실증 기반을 다져왔다.

체계를 완성하고, 정부의 수소특화단 이번 협약은 완주군이 추진 중인 수 지 유치를 위해 전북도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왔다.

유경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 대행 구성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한국탄소진흥원·완주수소연구원과 중 역량을 결합해 친환경 산업 생태계 은 "탄소소재의 기술력과 수소산업의 실증역량이 결합하면 완주는 대한민국 수소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

> 이홍기 완주수소연구원장은 "완주는 수소산업 실증과 산업화를 동시에 추 진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라며 "산업 전환과 에너지 혁신의 거점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연구·기술·인력 양성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는 탄소와 수소산업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산업 기반을 갖춘 도시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완주형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 특히, 완주수소연구원 설립을 통해 다"며 "탄소와 수소의 융합이 완주의 새로운 100년 산업지도를 열어 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완주군은 협약의 원활한 추진 을 위해 '탄소·수소산업 실무협의회'를

완주군, 10일 누에 어울림마당서 대형 트리 점등

문화도시지원센터 '희망트리' 크리스마스까지 46일간 운영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는 군민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연말 분 위기 조성을 위해 복합문화지구 누에 어울림마당에 대형 크리스마 스 희망 트리를 설치·운영한다.

이번 트리는 감성을 자극하는 컬러전구와 오브제 장식, 그리고 트리 주변을 환히 비추는 경관조 명, 입구 아치, 은하수 포토존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꾸며져 방문객 들에게 따뜻한 겨울의 정취를 선 사한다.

리'라는 문구를 새겨 새해를 맞이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더했다.

오는 10일 오후 5시 30분, 간소 의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 축하공연과 함께 점등식이 진 행될 예정이다. 군민과 관계자들 이 함께 불빛을 밝히며 올 한 해의 수고를 나누고, 새해의 희망을 함 대된다.

이번 대형 희망 트리는 10일부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는 오는 10일 누에 어울림마당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한다. 사진은 지난해 대 <사진=전북타임스>

트리 꼭대기에는 '완주 희망 트 터 12월 25일까지 46일간 점등되 며, 연말연시 동안 완주군민과 방 문객들에게 따뜻한 휴식과 포토존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조준모 센터장은 "희망 트리를 통해 군민 모두가 따뜻한 연말을 보내고, 새 해에도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 께 기원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 체의 빛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 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노송로 간판개선사업' 최종 선정

2026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 2억 투입 30개 업소 간판 개선

남원시 노암동 일대 '노송로 간판개 선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도 간판개선사업 공모에 1차 서류평가, 2 차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지 로 선정됐다.

올해에 이어 연속으로 행정안전부 공 모사업에 선정됐으며, 2025년 동림로 (향교오거리~동림교사거리) 구간에 이 어 2026년도에는 노송로(노암동행정복 지센터~한신아파트) 구간의 간판을 정 비할 예정이다.

노송로 간판개선사업에는 200백만원 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30개 업소의 간 판을 교체할 예정이며, 우수한 간판디



남원시 '노송로 간판개선사업'이 지난해 동림로 구간에 이어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 최 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사진=남원시>

하여 디자인 및 설치할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노송로 거리 일

자인 개발을 위해 옥외광고 전문가 컨 대의 경관개선을 통한 새로운 활력소 설팅 및 업소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를 만들어 상권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산불 예방 총력

파쇄지원단 11월~2월 집중 운영 환경보호 일손 절감 두 마리 토끼

순창군이 추진 중인 '영농부산물 파 쇄지원단' 운영이 지역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촌 지역에서는 수확 이후 콩대, 방문 후 파쇄 작업이 진행된다. 고춧대, 깨대 등 영농부산물이 다량 발생하며, 일부 농가에서 이를 불법 소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 고 있다. 특히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겹치는 겨울철에는 산불로 이어질 위 험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 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마을 단위 및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는 '파쇄지원단'을 연중 운영하고 있 으며, 특히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11 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농부산물 파쇄를 희망하는 농가 는 군에 신청하면 일정에 따라 현장

파쇄 지원을 받은 한 농가는 "예전 에는 부산물을 직접 태워야 해 산불 에 대한 걱정이 컸는데, 군에서 현장 까지 와서 안전하게 파쇄해주니 매우 편리하다"며, "환경 보호와 일손 절감

최영일 순창군수는 "군민 여러분께 서는 자발적 소각을 자제해주시고, 군 운영 파쇄지원단을 활용해주시길 바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을 직접 지원하 한다"고 당부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 군민사회교육 수강생 작품전시회 '함께의 빛展' 개최

순창군이 군민사회교육 수강생들의 1년 간 교육성과를 담은 작품전시회 '군민의 배 움, 함께의 빛展'을 오는 17일까지 옥천골 미술관에서 개최한다.

군민사회교육은 군민 누구나 여가선용과 자기계발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교육 의 장으로, 군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 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운 영되고 있다.

현재 생활양재 및 광목자수 기술교육 2 개, 서예, 도자기공예 등 취미교육 9개 총 11개 강좌가 상·하반기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전시회는 수강생들이 1년 동 안 쌓아온 배움의 열정과 노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서예 △사군자 △ 생활양재 △도자기공예 △광목자수 △미 술 등 6개 강좌 수강생들의 작품 100여 점 이 전시되어, 각 작품은 군민 개개인의 삶 의 이야기와 창의적 표현이 어우러져, 지역 의 문화적 감수성과 공동체 정신을 느낄 수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군민사회교육이 단 순한 배움을 넘어 군민이 함께 배우고 성장 하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순창군, 민선 8기 성과 점검…공약이행률 69.6%

2025년 공약이행평가 회의 개최 79개 중 55개 완료 도내 상위권

순창군이 민선 8기 막바지를 향해가 며 2025년도 공약사업의 내실 있는 마 무리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지난 5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2025년 공약이 행평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약사업 담당 부서장 과 양주철 단장을 비롯한 공약이행평 가단원 등 총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 난 3년간의 공약이행 실적을 종합 점검 하고, 공약 조정안에 대한 심의도 함께 진행됐다.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5년 3분기 기 준 55개 사업을 완료하며, 공약완료율 69.6%를 기록했다. 이는 도내 지자체 중에서도 상위권 수준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변경이 승인된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



순창군은 5일 3년간의 공약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 는 공약이행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순창군>

안건은 총 3건으로 △순창 5대 명창 위 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상 선양 사업 △민속마을 일원 장독대 현재 순창군은 5대 분야 79개 공약 공원 조성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등 추첨 주민배심원 중 참여 희망 위원들 이다. 해당 사업들은 공모사업 선정 및 사업성 검토 과정 등의 사유로 일정이 조정된 사례로, 군은 단순한 변경이지 제시된 건의사항에 대한 부서별 후속 만 군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기 조치 결과도 함께 공유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지난해 무작위 이 함께 참석해 소통의 폭을 넓혔다.

또한, 전년도 공약이행평가 회의에서

/순창=박지헌 기자

남원시, 우체국 온라인몰 프로모션 이달까지 연장

할인행사 전산망 화재로 중단 11월 30일까지 연장 추진

남원시는 지난 추석 명절 기간(9월 ~10월) 동안 추진했던 우체국 쇼핑몰 (mall.epost.go.kr) 내 남원시 농특산 물 판촉 프로모션을 11월 30일까지 연장해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지 할 계획이다. 역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할인쿠폰 발행, 배송비 지원, 기 획전 운영 등 다양한 프로모션 활동 을 추진 해왔다.

못한 정부기관 전산망 화재로 인해 일부 기간 동안 쇼핑몰 운영이 되지 다"라고 말했다. 않아 소비자와 농가 모두 불편을 겪

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 고 지역 농가 및 농특산품 가공 업체 의 판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행사 기간을 11월 30일까지 연장하고, 할 인쿠폰 재발행 및 특별기획전 운영을 통해 최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명절 기간 놓친 혜택을 다시 제공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산 장애로 인 해 불편을 겪으신 소비자와 농가 여 러분께 깊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라며, "기간 연장을 통해 남원 농특산 그러나 올해 추석 기간에는 예기치 물의 판로를 넓히고 소비자분들이 다 시 한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백금자 작가 크로키 선봬

'선의유희-dance!!' 연말까지 작가 '크로키 23년 역사' 한눈에

완주군이 전북특별자치도 명품 관 치실험이 돋보인다.

광지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지난 4일부 展을 시작했다.

낸 23년의 시간을 바탕으로, 인체의 아름다움과 예술적 교감을 시각적으 로 풀어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선의 유희'라는 주제 를 통해 모델의 움직임을 따라 절제 된 호흡과 속도, 강약의 조절이 만들 어내는 리듬을 표현한다.

특히 하드보드지와 골판지를 활용

한 인체 드로잉, 수채화·아크릴·유화 물감과 먹·화선지를 이용한 중첩된 인간군상 작업 등 다양한 재료와 설

10개의 대형 현수막천을 통해 작가 터 백금자 작가의 '선의유희-dance!!' 의 크로키 역사를 정리하고, 투명 및 색 아크릴을 활용한 모빌을 천장에 백금자 작가는 크로키에 매료돼 지 설치해 바람, 공기, 빛과의 조화를 통 해 움직임의 극대화를 시도했다.

> 서진순 문화역사과장은 "이번 전시 가 관람객들의 마음에 울림과 새로운 시선을 남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 '선의유희-dance!!' 전시는 오는 12 월 30일까지 삼례문화예술촌 제3전 시관에서 관람할 수 있다.

> >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보건소, 중장년 여성

마음건강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와 남원시정 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박지영)는 이달 4 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관내 중·장년 여성 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프로그램 '봄날의 햇 빛'을 운영한다.

'봄날의 햇빛'은 총 4회기로 진행되며, 중· 장년 여성이 겪는 신체적·심리적 변화와 사회적 역할 전환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를 예방하고 우울 및 불안 등 정서적 어려 움을 조기 발견·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집단 기반의 심리·정서 지원을 통 해 정서적 지지망을 형성하고 자기돌봄 역 량을 강화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중장 년기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옴니핏을 활용한 정신 건강검사, 스트레스 및 우울 예방교육, 생명 지킴이 양성교육, 힐링 프로그램 등으로 진 행되며 참여자들이 일상 속에서 스스로 마 음건강을 돌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 원한다.

한용재 보건소장은 "중장년 여성들이 이 번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돌보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수의계약 총량제, 지역경제 살렸다

시행 3년 만 관내업체 수주 97% 계약정보 공개 투명성 · 신뢰도 높여

만에 관내 업체 수주비율 97%를 달성 다.

발주공사에서 관내 업체 수주비율(8 월 말 기준)이 97%에 달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 전인 2021년 91.2%보다 5.8%p 높은 수치로, 제도 시행 이후 지역업체 참여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군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 완주군이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 3년 체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되, 동일 업체 의 연간 계약금액이 총 2억 원을 넘지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입증했 않도록 제한해 특정 업체의 편중을 방 지하고, 다수의 지역기업에 공정한 계 5일 완주군에 따르면 올해 수의계약 약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 이 같은 제도로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고르게 기회가 돌아가면 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 기반 조성 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수의계약 내역을 군 활성화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모두

공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관내 종합·전문건설업 및 용역업체 등 정보를 수록한 '관내업 체 알리미 홍보책자'를 제작·배포해 지 역업체 활용을 적극 홍보해오고 있다.

책자에 등재된 업체는 2025년 현재 1,046개로, 2023년 대비 100여 개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앞으로도 지역업체 데이터베이 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군 발주 공사 와 용역에 대한 지역기업 참여를 더욱

/완주=김명곤기자

진안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진안군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의 시작에 따라 산불 방지를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를 운영하고 있다.

군은 마이산, 구봉산, 운장산 등 우리 군 의 명산을 찾는 입산객과 영농활동을 위한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산불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운영 기간 동안 산림 인접지역(산림으로 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 내 영농 부산물 소각과 논·밭두렁 소각이 전면 금 지되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와 계 도·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농업인의 불편 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 행정복시센터에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을 하면 산불전문예 방진화대를 투입해 영농부산물 파쇄작업 을 무상 지원하고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산불은 작은 부주의에 서 시작되지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 긴다"며, "산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하지 않 기,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출입 하지 않기, 산에서 연기나 불꽃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군 산림과에 신고하기 등 산 불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 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고위직 공무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장수군은 지난 4일 군청 군민회관에서 기관장 및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 로 '2025년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 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1년부터 고위직 공무원 을 포함한 전 공공기관의 의무교육으로 시 행되고 있는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 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일환으로 공직사 회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건전한 조직문 화 정착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날 교육에는 최훈식 장수군수와 이정 우 부군수, 그리고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29명이 참석했으며, 폭력예방 전문강사인 홍미선 강사가 초청돼 최근 사회적으로 문 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 딥 페이크 등 다양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관리자와 기 관장의 역할, 조직 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 등이 함께 다뤄졌 으며, 참석자들은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윤 리의식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일자리 한마당' 개최 구인 구인자가 만나는 기회의 장

'2025 무주군 일자리 한마당' 행사가 5일 무주예체문화관에서 개최됐다.

무주군로컬JOB센터에서 주관한 이날 행 사는 지역 구직자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 고 구인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 된 것으로, 3백여 명이 참여해 관심을 모았 다.

무주군립요양병원을 비롯한 태권도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포렘 등 10개 기업 의 인사 담당자가 참석해 현장 면접을 진행 한 채용 부스에는 청년들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몰려 활기를 띠었다.

이외에도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 △지문인·적성 검사, △퍼스널 컬러 진단, △취업 타로 검사 등 취업 성공을 뒷 받침하기 위한 부대 프로그램이 마련돼 호 응을 얻었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신덕면 복지회관 새 단장

총사업비 40억원 투입 다목적실·휴게실 조성

임실군이 지역 주민의 복지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신덕면 복지회관 증축 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열었다.

군은 지난 4일 신덕면 복지회관 야외 마당에서 준공식을 갖고, 심 민 군수를 비롯해 장종민 군의회 의장, 박정규 전 북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장 등 지역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 지회관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 다. 이번 사업은 신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 협약 을 통해 선정된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의 교육·문화·복지 서비스 거점을 조성하 기 위한 하드웨어 사업과 주민의 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 웨어 사업으로 병행 추진됐다.

신덕면 복지회관은 2022년부터 2025 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40억원(국비 27억원 포함)을 투입해 조성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복지회관(상 사바위관, 420.55㎡)을 리모델링하고, 신규 복지회관(거북바위관, 381.75㎡) 용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했 할 계획이다.



임실군이 지역 주민의 복지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신덕면 복지회관 증축 공사'를 마 치고 새롭게 문을 열었다

다. 또한 주민 편의를 위한 야외마당 (386.5㎡)과 주차장(352.7㎡)을 함께 조성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였으며, 2024년 착공 이후 올해 11월 준공했다.

이와 함께 리더 교육, 주민 워크숍 등 지역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병행 추진 해 주민 참여와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 복지회관이 지역 주민들에게 여가와

군은 신덕면 복지회관을 신덕면의 복 지·문화 활동의 중심이자 주민 간 소통 의 장으로 운영해, 면민이 함께 어울리 을 증축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이 는 활력있는 생활거점 공간으로 육성

신동환 추진위원장은 "사업 기간 함 께 애써 준 추진위원들과 주민들께 감 사드린다"며"앞으로 이 공간이 지역발 전을 위한 협력과 소통의 장이 되길 기 대한다"고 전했다.

심 민 군수는 "새로이 준공된 신덕면 동아리 활동의 보금자리가 되고, 활발 한 공동체 활동으로 면민 모두의 일상 에 생기가 넘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산불 피해 산물 자원화 협약 체결

무주군산림조합·남원산림조합 ㈜유니드비티플러스 업무협약

무주군은 5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 서 무주군산림조합(조합장 박철수), 남 원산림조합(조합장 허윤영), ㈜유니드 비티플러스(대표 한상준)와 '산불 피해 산물 자원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지난 3월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면 적: 232.8ha, 주요 피해 수종: 참나무, 소나무류)로 인해 훼손된 산림 자원의 산림 자원의 이용, 목재산업 활성화, 나

효율적 활용과 조속한 복구를 위해 마 련된 것으로, 무주군은 이들 기관 및 업 체와 △무주군 내 산림 자원 및 산불 피 해목 자원화를 위한 공동 업무를 수행 하고 △산불 피해 산물의 생산·공급· 복구, △선도 산림경영단지 등 기타 사 기대가 크다"라고 덧붙였다. 업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전문성을 기반 으로 한 파트너십 구축이 산불 피해 지 역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산림 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 한다"라며 "산불 피해목의 활용 증대와

아가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까지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산불 피해 산물을 목재나 에너지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자원화하는 데 협력한다는 점에서도

무주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협력 기반을 조성해 '지산지소(地産地 消)'형 모델을 구축할 방침으로, 산불 피해 지역 복구계획에 따라 이달부터 벌채를 시작하고 내년 3월부터는 조림 에 들어갈 예정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군민과 함게 첫 도민체전 성공 이끈다!

2026년 전북자치도 양대체전 조직위원회 출범 5일 성공개최 결의대회 개최

진안군은 5일 군청 광장에서 2026년 개최 예정인 전북자치도 양대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는 조직위원회 출범식 및 성공개최 결의대회를 열었

이번 행사는 진안군 역사상 최초로 개최되는 제63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 육대회(2026. 9. 4.~9. 6.)와 제20회 전 북특별자치도민장애인체육대회(2026. 9. 18.~9. 20.)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마련 된 자리로 2026년 전북자치도 양대체 전 조직위원, 범군민참여위원, 진안군 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조직

위원 위촉장 수여 \triangle 기념사 및 축사 \triangle 번 양대체전은 진안군의 역량을 하나 준비상황 보고 △결의문 낭독 △성공 로 모으는 소중한 기회"라며 "진안군의 개최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에서 하나되는 전북도민'을 슬로건으 로, 군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대회를 만 들겠다는 다짐이 이어졌다. 행사 후에 는 체전 성공개최를 염원하는 '군민 건 기행사'가 이어져 출범식 분위기를 한 층 고조시켰다.

특히, 진안군은 이번 대회를 인근 지 고 덧붙였다. 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체육 인프라 확충 노력을 통해 성사시켰다 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지역 간 상생과 연대의 결실이자, 진안군이 명 실상부한 전북체육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춘성 조직위원장(진안군수)는 "이

무주군,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시행 준비 박차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군민들과 한마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생태치유 진안 음 한뜻으로 이끌어 모두가 즐기는 스 포츠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봉운 체육회장도 "도민체전 개최가 체육인들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고취시 키고 진안 체육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

진안군은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본 격적인 준비 체제에 돌입해, 기반 정비, 범군민 참여 확대 등을 통해 2026 전북 자치도민체전과 장애인체전의 성공적 인 개최를 향한 발걸음을 가속화할 계 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물고 싶은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군민의견 반영해 면밀히 심사"

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류됐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된 것이다.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는 지난 4 료 보완이 요구되어 보류했다. 김종규 운영행정위원장은 "군민을

> 위한 안건인지 면밀히 검토했다"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철처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다.

김정흠 농업복지위원장은 "이번 안 건은 미래 농업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 한 계기"라며 "스마트팜이 지역 농업 발전의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

임실군, 정신건강사업 우수기관 선정

전북자치도 기관 표창 수상

임실군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 한 2025년 정신건강복지사업 실무 자 워크숍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북특별자 치도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강 증진과 자살 예방을 추진해 온 다양한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군은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상담 △찾아가는 마음 건 강 서비스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 로그램 운영 등 적극적인 정신건강 사업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에 기여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이번 수상은 임실 군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성 이번 표창은 지역 주민의 정신건 과로, 앞으로도 다양한 정신건강사 업을 실시하여 건강한 임실을 만들 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제42회 노인대학 수료식 성료

총 107명 어르신 수료

장수군은 지난 4일 (사)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지회장 허기태)가 장수군 사회복지회관에서 제42회 노인대학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학생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지역사 회의 주목을 받았다.

최훈식 장수군수와 최한주 군의회 의장, 기관·단체장, 지회 임원 등 내빈 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수료식 은 국민의례, 학사 보고, 수료증 수여,

우수 수료생 표창, 격려사 및 축사 등 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학업에 대한 열정과 배 움의 기쁨이 어우러진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축하하며 마무리됐다.

허기태 지회장은 "어르신들의 꾸준 홍봉길 노인대학장과 107명의 노인 한 노력과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학 습 분위기가 오늘의 결실을 이루게 했 다"며 "내년에도 더욱 즐겁고 유익한 프로그램 운영하여 많은 어르신들의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 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인구활력 추진단 회의' 진행

2026년 생활인구 210만 명목표

진안군은 5일 군청 상황실에서 주영 환 부군수 주재로 '2025년 진안군 인

구활력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진안군 인구감소 대 응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됐으 며 국장, 실과소장 등 25명이 참석해 2026년 생활인구 210만 명 달성을 위 한 부서별 추진계획과 지방소멸대응 기금 투자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각 실과소별로 생활인구 확대 사업과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 자계획(안)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협업방안과 신규 시책 발굴 방향에 대 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주영환 부군수는 "진안군은 이제 단 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며,"각 부서가 추진 중인 사업의 연계 성과 실효성을 높여, 진안이 '찾고 머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

진안군은 올해를 기점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성과 중심 평가체계 전환 에 대응해 기존 사업의 집행률 제고와 신규 사업 발굴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내년 개최되는 '제63회 전북특 별자치도민체육대회'를 기반으로 스 포츠·관광·문화행사 등 체류형 콘텐 츠를 확충해 생활인구 확대의 실질적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군은 '진안군 인구정책 지원 조 례'를 전면 개정해 '생활인구' 개념을 제도에 반영하고, '생활인구 TF팀'을 중심으로 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 및 신규 시책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순히 주민등록 인구 중심이 아니라 생 투자사업에는 주거, 관광, 치유, 농업 활인구를 기반으로 한 지역 활력 정 등 생활인구와 직결되는 사람 중심형 사업을 중점 편성해 지역 내 순환 구 조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인구활력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의회, 제348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개최

일 제348회 임시회(폐회 중) 운영행정 위원회(위원장 김종규)와 농업복지위 원회를 열고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제348회 임시회에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오수개 연 구소 이전 신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 획안', '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 공유재 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 '임실 군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에 따른 주 변지역 지원 조례안'은 실질적인 내용 다. 변경 없이 법령 용어에 맞춰 수정・가

결했다. '세계명견 명소화 사업 공유재 산관리계획안'은 추가적인 논의와 자

농업복지위원회에서는 '소규모 임대 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

/임실=한병열 기자

한국조폐공사와맞손 무주사랑상품권 업무 대행 협약

무주군이 무주사랑상품권의 안전한 발행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한국조 폐공사에 운영을 맡기기로 했다고 밝 혔다.

이와 관련해 두 기관은 지난 5일, 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군청 군수실에서 '무주사랑상품권 업 무 대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성창 훈 한국조폐공사 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함께 했다.

월부터 한국조폐공사의 모바일 지역사 랑상품권 플랫폼인 '착(chak)'을 활용 해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를 제공할 계 획이다. 카드 결제 및 QR결제 등 다양 한 방식이 도입돼 지역 주민과 상인들 모두가 편리하게 상품권을 이용할 수

황인홍 무주군수는 "다양한 결제 수 무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으로, 개 단 제공으로 이용 편의성이 높아짐에 따라 무주사랑상품권 사용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무주경제가 살리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한국조폐공사

이번 협약을 계기로 무주군은 내년 4 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조폐공 사와의 동행이 무주사랑상품권의 신뢰 성과 활용도를 높여줄 것"이라며 "무주 군민의 신뢰를 얻고, 나아가 무주군 지 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올해 350억 원 규모의 인당 월 최대 1백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최대 15%의 할인 혜택도 제공 된다.

/무주=최의호 기자



완주시니어클럽 공동체사업단 어르신들, 가을 나들이 여행

완주시니어클럽(관장 김대권)이 지난 4일 노 인일자리 공동체사업단 참여 어르신 290명을 대상으로 '국립세종수목원'과 '청남대' 일원을 찾아 가을 나들이 문화활동을 진행했다.

어르신들은 다양한 꽃과 식물이 어우러진 국 립세종수목원의 정원을 둘러보며 자연의 아름 다움을 감상했고, 이어 단풍이 절정을 이룬 청 남대를 방문해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이번 활동은 공동체사업단 참여 어르신들에 게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고, 함께하는 즐거움 속에서 협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 으로 마무리됐다.

김대권 완주시니어클럽 관장은 "이번 가을 나들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밝고 건강한 모습 을 보여주셔서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어르 신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활기 찬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임실 신덕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 바자회' 나눔 행사 진행

임실 신덕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정란) 가 지난 4일 신덕면 복지회관에서 '신덕면 주 민자치 바자회'를 열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바자회는 2025년도 신덕면 주민자치 자 체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신덕면민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판매·기부 행 사가 함께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재능기부로 다과를 나누고, 직접 만든 뜨개질 및 압화 작품을 전시·판매하며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공동체 의식을 되새겼다.

이번 행사를 통해 신덕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 참여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사회의 상생 과 연대의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정란 위원장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함 께 만들어가는 이번 바자회가 이웃 간의 따뜻 한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장애인탁구선수단,국제·전국대회서 잇단쾌거

백영복선수·김준오선수 뛰어난경기력선보여

장수군은 장수군장애인체육회 (회장 최훈식) 소속 탁구선수들이 다. 국내외 주요 대회에서 잇따라 우 을 높였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지난달 14일부터 19일까지 열린 2025 아시아지역선수권대회에서 백영복 선수가 남자단식과 복식 부문에서 각각 동메달을 획득하며 국제무대에서 실력을 입증했다.

이번 대회는 국제탁구연맹

(ITTF) 산하 아시아장애인탁구연 맹(APTTF)이 주최한 아시아 최고 권위의 국제대회로, 세계랭킹 포 인트가 반영되는 중요한 대회였

이어 같은 시기에 열린 제21회 수한 성적을 거두며 지역의 위상 서산시장배 전국장애인탁구대회 에서는 김준오 선수가 남자단식에 장수군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서 동메달을 차지해 국내 대회에 서도 값진 성과를 거뒀다.

> 두 선수 모두 꾸준한 훈련과 열 정으로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이며 장수군 장애인체육의 저력을 보여 줬다.

> >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독립운동가 박준승 선생 추모행사 개최

독립 정신 · 애국심 고취

임실군과 독립운동가 박준승선생 기념사업회가 지난 4일 청웅면 박 준승 선생 추모공원에서 추모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유혜숙 임실군청 복 지환경국장, 양주영 군의회 부의장 및 의원, 신경순 전북동부보훈지청 장, 임실호국원장 등 유관기관 단체 장을 비롯한 청웅중학교 교장 및 학 생, 유족과 지역 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준승 선생의 약력 보고를 시작 으로 추모 제례 행사가 진행됐으며, 국권 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 를 드높였던 박준승 선생의 위업을 기리고 독립 정신과 애국심을 고취 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심 민 군수는 "조국을 위한 고귀 한 희생과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 사의 마음을 표하고, 박준승 선생을 비롯한 우리 임실의 호국 영웅들의 뜻을 계승 발전시키는 귀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한국육계협회 부안군지부, 닭고기 300마리 기탁

(지부장 박용석)는 지난 4일 다가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기 오는 부안군청을 방문해 어려운 탁이 작은 나눔이지만, 어려운 이 이웃을 위해 닭고기 300마리(총 웃들의 건강과 따뜻한 일상에 보 3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경기침체와 물가상 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취 전해주신 한국육계협회 부안군지 약계층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탁된 닭고 며, "기탁된 닭고기는 소외계층이 기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 득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용석 지부장은 "농가에서 정

(사)한국육계협회 부안군지부 성껏 키운 닭고기를 지역사회와 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권익현 군수는 "따뜻한 마음을 한국육계협회의 온정을 느낄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 /부안=신상수 기자



여산일심신협. 여산면에 겨울이불 20채 기부

추운 겨울을 앞두고 5일 여산면 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훈훈한 나 눔이 전달됐다.

금용)은 여산면 행정복지센터를 가겠다"고 말했다. 찾아 겨울 이불 약 20채(17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독거노인, 저소득 가정 등 도움이 할 예정이다.

진금용 부이사장은 "도움의 손

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다가오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이날 여산일심신협(부이사장 진 함께하는 나눔을 지속적으로 이어

이정노 여산면장은 "지역에 대 한 애정과 관심으로 매년 이웃사 여산면은 전달받은 겨울 이불을 방을 실천해 준 일심신협에 감사 드린다"며 "기탁받은 겨울 이불은 필요한 취약계층 20여 명에 전달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진안군 주민자치위원장 일동, 장학금 1백만원 기부

진안군 읍·면 주민자치위원장들이 5일, 제 16회 평생학습&주민자치 어울마당 행사를 기 념해 따뜻한 마음을 모아 진안사랑장학재단 (이사장 전춘성)에 장학금 1백만원을 기부했

전달식에 참여한 최경자 진안군 주민자치협 의회장은 "미래 희망인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학업에 전진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위원장님들과 뜻을 모았 다"며, "오늘 전달한 장학금이 학생들의 성장 밑거름이 되어, 진안에 희망을 불어넣는 큰 동 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춘성 이사장은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깊은 뜻에 감사드리며, 기부 해주신 장학금은 학생들이 경제적인 걱정 없이 오직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완주 학교 밖 청소년, 제주도 '꿈드림 수학여행' 진행

완주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박현 정)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아성장과 회복을 위한 '2025 꿈드림 수학여행 3차 바람찰칵 제 주'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수학여행은 지난 4일부터 오는 7일까 지 3박 4일간 제주 일원에서 열리며, 학교 밖 청소년 7명이 참여했다. 단순한 관광을 넘어 여행과 쉼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적 성 장을 경험하는 치유형 프로그램으로 기획됐 다.

이번 프로그램은 예술 감수성 향상을 통한 청소년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하는 '예감프로젝 트'의 일환으로, 참가 청소년들은 제주의 자연 과 문화 속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기며 매 일 저녁 자기이해를 주제로 한 집단상담을 통 해 하루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사진, 그림, 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며, 타인을 이 해하고 또래 간 관계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으 로 운영된다.

/완주=김명곤 기자

독감 주사 주의사항

예방접종 준비 시



건강상태가 좋은날에 받는다.

○ 사전에 예약을 한다

예방접종 받을 때

ㅇ아픈 증상이 있거나 만성 질환이 있다면, 의료인 에게 말한다.

전종후20~30분 이상반응 이 있는지 관찰 한다

예방접종 받은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2~3일간 몸상태를 살핀다 ㅇ고열, 호흡곤란, 두드러ㄱ 심한 현기증이나타나면 병원에 내원한다.

〈一事一言〉



전북이 여는 농촌 회생의 길, 농어촌활력재단에 거는 기대

김관춘

논설위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 로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조례 제정과 법인 등기 절차를 마치면 하반기쯤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 인다. 지난 10월 말 행정안전부의 최종 승인으로 문턱을 넘은 이번 재단 설립은, 단순한 행정기구 신 설이 아니라 농촌소멸 위기에 처 한 전북 농어촌의 미래를 다시 설 계하는 중대한 이정표라 할 만하 다.

작금의 농촌은 그야말로 생존 의 기로에 서 있다. 전국 농가인 구는 2010년 306만 명에서 2024 년 200만 명 수준으로 급감했고, 청년농업인은 같은 기간 69%가 줄었다. 전북의 상황은 더 심각하 다. 14개 시군 중 10곳이 인구감 소지역, 13곳은 소멸위험지역으 로 분류된다. 마을이 사라지고 학 교가 문을 닫으며, 고령화와 과소 화가 생활 인프라 붕괴로 이어졌 다. 문화를 비롯해 의료·복지·교 육 등 기본 서비스조차 받기 힘든 지역이 늘어나면서 농촌과 도시 간 삶의 질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위기의식 속에서 전북 도는 농촌문제 해결의 '컨트롤타 워' 역할을 수행할 전문기관의 필 요성을 오래전부터 인식해 왔다. 2015년 전북농촌융복합지원센 터, 2017년 전북농어촌종합지원 센터, 2019년 전북농어업농어촌 일자리플러스센터 등 다양한 형 태로 대응해 왔지만, 위탁·보조 중심의 한계는 뚜렷했다. 사업의 공공성, 지속성,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에 전북도는 근본적인 구조 개편에 나섰다. 올해 3월 농촌경 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를 구축하고, 4월에는 농림축산식품 부로부터 전국교육훈련기관 지 정을 받았다. 이어 10월 29일 행 안부 승인으로 '전북농어촌활력 재단' 설립이 확정되면서 농촌문 제 해결을 위한 '3박자 체계'가 완 성됐다. 재단은 이들 기관을 통합 운영하는 실질적 구심점으로 기 능하게 된다.

총 48억 원 규모의 예산과 3억 원의 자본금으로 출범할 재단은 올해 준공된 4층 규모의 농촌경 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삼는다. 단순히 행정 보 조기구가 아니라, 농촌경제 활성 화·공동체 회복·생활서비스 개 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농촌 회생의 플랫폼'이 될 전망이다. 도민 7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8% 이상 이 지역발전, 일자리 개선, 생활 여건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 한다고 답했다. 이는 재단 설립이 단지 정책 차원의 조치가 아니라 도민 체감형 변화로 이어질 수 있 음을 보여준다.

이 재단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 다. 첫째, 농촌현장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탁상행정식 접근이 아니라, 마을 단위의 주 민 주도형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 해야 한다. 농촌문제는 외부 전문 가보다 지역주민이 더 잘 알고 있 다. 주민과 행정, 민간이 협력하 는 '상향식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둘째, 청년 유입과 일자리 창출 이 병행되어야 한다. 고령화된 농 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주체는 결 국 사람이다. 재단은 농촌 일자리 와 창업 지원,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통해 청년들이 농촌을 새 로운 기회의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농촌의 지 속 가능성은 인구 구조의 회복에 서 시작된다.

셋째, 농촌 삶의 질 서비스의 공 공성 강화다. 의료·돌봄·교통·문 화 등 생활서비스는 단순한 복지 가 아니라 생존 인프라다. 재단은 이들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기획・ 운영하여, '살고 싶은 농촌', '돌아 오는 시골'을 만드는 촉진자가 되 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 정·행정 지원을 체계적으로 연계 해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 해야 한다.

넷째,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체 계 구축도 관건이다. 재단이 안정 적으로 운영되려면 지방비 의존 을 넘어 중앙정부·민간 협력, 지 역순환경제 기반의 자생적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 단기 사업 위주 의 예산이 아니라 장기적 전략 프 로젝트 중심의 투자 구조로 전환 해야 한다.

이번 전북농어촌활력재단의 출 범은 단지 한 지역의 실험이 아니 다. 전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농 촌소멸 위기에 대한 선도적 대응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북이 성공 사례를 만든다면, 이 는 곧 국가 차원의 농촌재생 정책 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제도적 틀'을 넘어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행력이다. 전북도가 그동안 쌓

아온 경험과 행정역량을 바탕으 로, 재단을 실질적 변화를 이끄는 기관으로 육성한다면 농촌 소멸 의 사슬을 끊는 전환점이 될 것이 다. 전국 최초의 농촌문제 해결을 고민할 수 있는 재단 설립을 승인 받은 것은 전북도가 농촌문제 해 결 선구자로서 국가적 사명을 부 여받았다. 보편적 농촌생활서비 스 전달 체계를 잘 만들어서 활력 농촌 조성을 견인하는 역할에 최 선을 다해야 한다.

전북은 이미 '농생명 산업의 중 심지'이자 '균형발전의 실험장'으 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농어촌 활력재단이 더해진다면, 전북은 '지속가능한 농촌 재생의 모델지 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농촌 을 살리는 일은 곧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일이다. 전북의 이번 도전이 전국 농촌의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

새만금 신항만, 전북 해양관광의 새 물길 열자

전북자치도가 새만금 신항만을 중심 으로 한 크루즈관광 거점화에 본격 나섰 다. 내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을 앞두고 크루즈 유치 전략과 국제 크루즈터미널 조성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 하고 있다. 이는 전북 관광산업의 새로 운 지평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전북도는 최근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활성화 및 국제 크루즈터미널 조성 연 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어 전북형 실행 전략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단순히 항만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 고, 지역 전체의 관광 생태계를 연계해 새로운 경제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구상

전북은 그간 크루즈산업 기반을 차근 차근 다져왔다. 지난해 새만금개발청 등 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선사· 여행사 세미나 개최, 전담 TF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 유치 기반을 마련해 왔다. 올해는 '전북 크루즈산업 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전문가와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부산・ 제주 인천 등 기존 기항지 중심에서 벗 어나 신규 기항지를 발굴하려는 시점에 전북도가 '새만금 신항만'과 '격포항'을 신규 기항지로 신청한 것은 매우 시의적 절하다.

새만금 신항만이 전국 8대 크루즈 기 항지로 지정된다면, 전북은 내륙 중심의 관광지라는 한계를 넘어 해양관광의 새 축을 형성할 수 있다. 더불어 새만금~전 주 고속도로가 크루즈 관광객의 이동 편 의성을 높이며 전북 전역으로 관광 수요 를 확산시키는 핵심 축으로 작용할 것이 다.

전북은 이미 각 시·군이 독창적인 관

광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고창 의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남원 광한루 원, 무주 덕유산, 완주 로컬푸드와 예술 인 마을, 익산 백제문화 유산, 군산 근대 문화거리 등이 그 예다. 여기에 새만금 신항만이 더해지면 '바다에서 육지로 이 어지는 전북형 관광 루트'가 완성된다. 크루즈 관광객이 항만에 내린 뒤 전북의 주요 관광지를 순환할 수 있도록 교통망 과 체류형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설계해 야 한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CIQ 인프라 구축과 통관 절차 의 효율화, 외국인 관광객 맞춤형 서비 스, 항만 인근 숙박·쇼핑·문화시설 확충 이 병행돼야 한다. 크루즈 선사와 여행 사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마케팅과 인 센티브 제도도 실효성 있게 마련되어야 하고 장기적인 산업 생태계로 발전하기 위한 관련 기관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

새만금은 이미 전북의 미래 100년을 열 핵심 전략지로 평가받고 있다. 그 위 상에 걸맞게 크루즈산업을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는 것은 신의 한 수다. 이제 필요한 것은 속 도와 실행력이다.

새만금 신항만을 전북의 '해양관광 관 문'으로 만들어, 세계 크루즈 노선의 정 기 기항지가 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해양관광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 록 치밀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새만금 신항만에서 출발한 크루즈 가 전북의 바다를 넘어 세계로 향하는 날, 전북관광의 지도가 새롭게 그려질 것이다. 이번 추진이 전북의 해양관광 르네상스를 여는 첫 항해가 되기를 기대

▲ 오늘의시

11월 / 나희덕

바람은 마지막 잎새마저 뜯어 달아난다 그러나 세상에 남겨진 자비에 대하여 나무는 눈물 흘리며 감사한다

시인 약력 : 1966년 충남 논산 출생. 연세대 국문 학과와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마쳤다. 1989년 중 앙일보 신춘문예에 시 '뿌리에게'가 당선되어 등

길가의 풀들을 더럽히며 빗줄기가 지나간다 희미한 햇살이라도 잠시 들면 거리마다 풀들이 상처를 널어 말리고 있다

단했다. 시집으로 '뿌리에게' '그 말이 잎을 물들 였다' '파일명 서정시' 등이 있고 산문집으로 '반 통의 물' '저 불빛들을 기억해' 시론집으로 '보랏 다. 서울과학기술대 문창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낮도 저녁도 아닌 시간에, 가을도 겨울도 아닌 계절에, 모든 것은 예고에 불과한 고통일 뿐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지만 모든 것은 겨울을 이길 만한 눈동자들이다

빛은 어디에서 오는가' 등이 등이 있다. 김수영 문학상과 미당문학상, 백석문학상 등을 수상했



부설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기록유산, 민간문서 -지정일 - 1992년 6월 20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부안군 변산면 내변산로 236-180



2011년 10월01일 회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일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편집국 팩스 283-8800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전주지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중앙지사 010-9678-4271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시-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경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30년 지방자치의 결실, 전북특별자치도가 열어가는 균형발전 시대 下

128년 만의 역사적 도약, 333개 특례로 여는 분권 새 시대 동부권 육성부터 새만금까지 광역-기초 협력모델로 균형발전 청사진 주민 중심 자율·책·지방 믿고 권한 넘기는 것이 진정한 자치

_{전간}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인

민선 8기, 2024년 1월 18일 공식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는 30년 지방 자치 역사의 결실이자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다.

지난달 27일 전북은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네 번 째 특별광역자치단체로 전환하며 333개 특례를 확보했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독자적 발전 계획 수립, 행정·재정적 자율성 확대를 의미한다.

확보한 333개 특례는 교육, 산업, 문화, 복지, 환경 등 전 분야를 아우른 다.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을 통해 지 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중앙정부 의 일방적 정책 시행에서 벗어 나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 한 맞춤형 발전 전략이 가 능해졌다는 점에서 진 정한 지방자치의 완성 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와 함께 중요한 과제가 지역 내 균형발전이 다. 도는 동부권특별회계를 통 해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 창 등 6개 지역의 인프라 구축과 산 업 육성, 관광 개발 등을 지원하며 지 역 간 격차 해소에 힘쓰고 있다.

2007년 시작된 도 산하기관 이 전도 균형발전의 중요한 성과다. 인재개발원(남원), 산림환경연 구원(진안), 축산연구소(장 수), 보건환경연구원(임 실), 도로관리사업소(순 창) 등이 동부권으로 이 전돼 지역 발전의 거점 역 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2005년 도입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낙후 지역개발과 지 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 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友陰

1,113,594명

출범 기념주민등록

등본 발급 행사

범도민 서명부

각 시군의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특례는 전북 내지역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례를 활용해 각 시군의 문화자원을 발굴·연계하여 전북 전체를 하나의 문화관광 벨트로 조성하는 작업도병행 중이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 참여다. 2019년 본격 시행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주민들은 예산 심의에참여하고 사업을 제안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직접 개진할 수 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보완하고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도 지방자치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다. 이를 통해지방의회의 정책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민주적 거버넌스가 확립됐다. 집행부와 의회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며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2023년에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시대 위원회가 출범했다. 제1차 지 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 주도 성장을 도모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민선 3기부터 추진된 새만금 사업 은 전북의 최대 프로젝트이자 국가 균 형발전의 상징이다.

재생에너지클러스터, 스마트 수변도 시, 관광거점화 사업, 종자산업혁신 클러스터 등이 동시에 진행되며 새만금은 명실상부한 미래 성 장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투자 유치에서도 역대 최 대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4년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개최는 전북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해외 투 자를 유치하는 계기가 됐다.

전 세계 한인 기업인들이 전북을 방문하며 투자 가능성을 타진했고, 실 제 투자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

이러한 성과는 특별자치도의 특례를 활용한 규제 완화, 신속한 행정 지원,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이 뒷받침된 결과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업을 유치 하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권한과 역량을 갖추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

/장정철 기자

[인터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지방자치 30년, 이제는 실질적 분권으로 지역이 답하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달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 30년은 중앙집권에서 지방 분권으로 나아가는 민주주의의 위대한 여정이었다"며 "이제 우리는 형식적 자치를 넘어 실질적 분권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방자치제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자리 잡았다"며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등 제도적 성과가 축적됐고, 공공기관 이전과 균형 발전특별회계 설치는 지역균형발전의 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권 교체와 12.3 내란 시도 대응 과정에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 있는 대응력이 국가 위기관리의 한 축으로 작용했다"며 "이는 지방정 부가 단순한 집행기관을 넘어 국가 운영의 주체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증 거"라고 평가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128년 만의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지역 주도형 행정체계를 통한 실질적 분권형 지방 정부로의 재탄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지사는 "지난 30년간 지방정부는 성숙했고, 스스로 지역을 책임지고 미래를 설계할 역량을 갖췄다"며 "이제는 중앙이 더 잘할 것이라는 고정관 념을 버리고, 지방을 믿고 권한을 넘기는 것이 진정한 자치이며 지속가능 한 분권의 출발점"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취임 선서에서 '균형 없이는 성장도 없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 롯된다'며 균형성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라며 "지역소멸 대응과 균 형발전 강화를 위한 행정체계 개편 공약은 지방 주도의 자치 실현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제도 남아 있다"며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은 7대 3에 머물러 있고, 지방교부세 비율은 20년 넘게 동결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세수 추계 오류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시절부터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이 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전국이 기회를 고루 누리고, 지방에 더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하신 만큼, 재정권은 지방정책 실행의 핵심이므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보조금 중심 구조를 넘어 지방세 확충과 교부세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지역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균형발전이 실현돼야 지역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야 국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북은 광역-기초 간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치를 통해 지방자치의 실질적 주체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주민 중심의 자율 성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지방자치를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다짐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애로 시원하게 해결!

비즈니스지원단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분야별 전문가 무료 상담 지원

- 방문/전화/인터넷 상담 가능 (063-210-6436~8)
- 전복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민원실
 - 상담분야는 매일 상이하므로 전화·방문 전 홈페이지 www.smes.go.kr/bizlink에서 근무일정 확인

창업 | 경영전략 | 마케팅 | 법무 | 금융 | 인사·노무 | 세무·회계 | 수출입 | 기술 | 특허 | 정보화 | 생산관리

